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20년간 96명의 정치 인턴 한인 정치력 신장 씨 뿌려

시민협회 정치인턴 20주년 기념 모금만찬 150명 참여 성황리에 마쳐  
시민협회 주관 매사추세츠주 한인의 날 행사도 10월 주 청사에서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가 2017년 10명의 정치인턴을 선발, 올해까지 총 96명의 정치인턴을 배출했다. 한인의 불모지였던 미 정계에 한인정치력 신장의 씨앗을 심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한 정치인턴 사업은 1998년 토마스 김 한 명을 선발하며 첫 걸음을 뒀다.

20년이 지난 4월 8일 렉싱턴 소재 엘크스 클럽에서 시민협회는 서민영, 장원영, 허주빈, 전승주, 고지훈, 남궁유리, 김동민, 이태현, 박규태, 이정옥 총 10명의 인턴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민협회는 그동안 선발한 인턴의 수는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98년 이래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정치인턴을 선발해 여류방학 동안 매사추세츠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보스톤시



지역 봉사상을 받은 사라 김 매사추세츠 재무부 수석 변호사(왼쪽)와 이경혜 시민협회장

장 등 사무실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왔다.

김성군 이사장은 정치인턴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턴 경험의 중요성을 동포 한인사회

에서 더욱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인턴을 통한 한인 차세대 육성사업이 미국주류 사회에 절대적으로 큰 공헌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치인턴으로 선발된 진하나, 박하영, 장준희, 장원영, 김윤교, 고선민, 오세라, 서진영 학생 8명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 르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아냈다.

한 참석자는 이 경험담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으며 인턴십 경험이 차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고 밝혔다.

4월 8일 토요일 저녁 기금모금 만찬에는 초청연사인 사라 김 >>2면으로 계속



## 보스톤 마라톤 한국 선수 120명 참가

### 올해도 한국출신 엘리트 선수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4월 17일 패트리엇스데이에 열리는 제 121회 보스톤마라톤에는 한국 국적의 선수가 총 121명 참가한다. 한국에서 참가한 선수는 총 105명 나머지는 미주 전역에서 참가하는 한국 국적 선수들이다. 이중 대부분이 남성 참가자들이며 여성 참가자들도 21명에 달한다.

121회 보스톤마라톤에는 총 3만여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 \$919~  
한국행항공권

향립 47주년 기념  
한국방문길머리는  
도쿄여행 패키지

한국행 항공권 포함가! (항공료 제외)  
도쿄 시내 호텔 2박, 왕복 공항여객기 티켓, 도쿄입장권  
= 편하는 입장료도 게스트티켓이 가능! (1인 기준 3박4일 여행비용 제외)

**\$1,890~**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Chang Yoon,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Miran Kwon,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 20년간 96명의 정치 인턴, 한인 정치력 신장 시 뿌려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주 재무부 수석변호사와 엄성준 총영사, 태키 쉐 매사추세츠 주의원,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의장, 르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다니엘 고 보스톤 시장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지역한인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시민협회가 미래 한인 세대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크게 치하하고 젊은 한인 세대가 한미관계 증진 그리고 더 많은 차세대 리더들이 미국주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청 연사인 한인 2세인 사라 김 매사추세츠주 재무부 수석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일반 변호사 업무를 10여년하면서 늘 오랫동안 꿈꿔왔던 “정부와 공공 분야” 진출(매사추세츠 재무부 수석변호사)을 어떻게 이뤘는지 본인의 상세한 경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태키 쉐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은 시민협회와 공동 노력으로 올 10월 “2017년 매사추세츠 주-한국 헤리티지날” 행사를 주청사에서 개최하는 것이 공식화 되었다”고 밝히고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은 지난 30여년 한인동포사회와 특별히 시민협회 현-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문소박사와 초청 연사인 사라 김 변호사에게 지역봉사 감사패를 증정했다.이날 만찬 후 특별 공연 순서로는 주재희씨의 첼로연주와 김도연씨의 가야금연주가 이어졌다.

hsb@bostonkorea.com



시민협회는 서민영, 장원영, 해주빈, 전승주, 고지훈, 남궁유리, 김동민, 이태현, 박규태, 이정욱 총 10명의 인턴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민협회 현-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문소 박사(왼쪽)가 지역봉사상을 수상했다



엄성준 총영사를 비롯한 지역한인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보스톤 미국본토 재외선거 등록율 1위 확정

선관위 확정 선거인 수 총 3,305명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외국 어디서나, 귀국해서도 투표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단기간에 이뤄진 19대 조기대선일정에서 보스톤은 미국 내 본토지역 중 등록율 1위를 기록했다. 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에 확정된 선거인수는 총 3,305명으로 선거예상인수 17,534명 대비 최종 등록율 18.85%를 기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보스톤 선거인 중 재외선거인은 338명이었으며 국외부재자가 2,967명이었다. 남성이 1,523명 여성이 1,782명으로 여성 비율이 소폭 높았다.

보스톤의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총 3542명이 등록했으며 당시 예상선거인수 12,890명으로 등록율은 27.4%였다.

비록 보스톤의 선거인수가 2012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이번 대선에는 역대 재외선거 사상 최다인 294,633명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록자수 222,389명에 비하여 32.5%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154,217명에 비하여 91.1%가 증가한 것이다. 19대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인 197만여 명의 14.9%에 해당한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보스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19대 조기대선에서 보스톤은 미국내 본토지역 중 등록율 1위를 기록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6개국 20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보내 5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 121회 보스톤마라톤에는 총 3만여명이 참가할 예정

▶▶ 1면에 이어서

명의 참가자들이 코스를 달리게 된다. 보스톤마라톤에는 약 1백만여명의 보스톤 주민들이 선수들을 응원한다. 1,500명의 보스톤 경찰과 450명의 주경찰이 보스톤마라톤에 배치되며 이외에도 4천여명의 주, 연방 경찰병력이 보스톤 마라톤을 경호한다.

보스톤마라톤은 합킨톤을 출발 보스톤 보일스톤 스트리트 공립도서관 앞의 결승선까지 총 26마일 385야드를 달리게 된다. 오전 8시 50분에 장애 선수들이 출발하고 9시 17분에 남자 휠체어, 19분에 여자 휠체어 레이스가 출발한다.

엘리트 여성 선수는 오전 9시 32분에 출발하며 엘리트 남성 선수와 1차 출발팀은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2차 출발팀은 10시 25분, 3차 출발팀은 10시 50분 4차 출발팀은 11시 15분에 출발한다.

올해 우승 상금은 \$830,500이며 신기록을 세울 경우 보너스로 \$220,000을 받게 된다. 보스톤 마라톤의 남자 신기록

은 2011년 세워진 케냐출신 지오프리 무타이의 2시간 3분 2초이다. 여자 신기록은 2014년 에디오피아 출신의 데바 베주네시가 세운 2시간 19분 59초다.

지난해 보스톤마라톤에서는 남성의 경우 에디오피아의 레미 버하누 헤일 선수가 2시간 12분 45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성은 역시 에디오피아의 에트세데 베이사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보스톤을 주름잡던 케냐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올해도 보스톤마라톤은 케냐 또는 에디오피아 선수들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선수중에는 우승을 다툴 엘리트 선수가 올해도 출전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송창욱(50, 등번호 548), 신길선(37, 등번호 96) 씨 등이다. 또한 산악인 김진태(54) 씨도 주목할 만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성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인 | 회원사

#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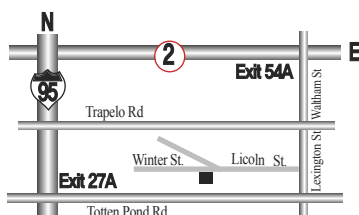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 및 통일안보 비전대회 지역예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회는 4월 30일까지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와 통일안보비전 발표대회 지역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지역예선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퀴즈대회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보스톤평통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vision-2017>)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다.

퀴즈대회는 통일골든벨퀴즈대회는 '2017고등학교 기본문제'에서 뽑아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문제집은 위의 웹사이트에 있으며 영어버전은 공부하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통은 지역 예선의 최우수상 1명에게 \$500, 우수상 1명 \$300, 장려상 5명에게 각 \$100씩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미주전체에서 선발된 통일 골든벨 1등 수상자는 7월 초 한국에서 개최

되는 KBS특집방송 '도전! 골든벨'에 미주대표로 참가한다. 골든벨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는 항공비 전액지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통일안보비전발표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다. 2-5명이 팀이 되어서 프레젠테이션, 뮤지컬, 콩트, 연극, 개그, 연주, 마술, 댄스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통일안보 비전 주제를 표현하는 대회다. 신청서를 보스톤 평통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예선은 최우수상 1팀 \$500, 우수상 1팀 300, 장려상 2팀 \$200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팀은 미주본선진출권이 부여되며 미주 본선(비디오 심사)에서 선발된 팀은 한국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항공권전액지급, 대회기간 합숙비 전액이 지원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 평통 윤미자 준비위원장 ([mijayun@hotmail/978-987-7388](mailto:mijayun@hotmail/978-987-7388))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매사추세츠 주립대 한인 학생회 한국 현대시 낭송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문학작품을 영어로 번역, 세계에 알리는 매사추세츠 한국문화원 (Koreanlit.com)과 매사추세츠 주립대 (UMASS) 앰허스트캠퍼스 한인학생회가 힘을 합쳐 한국 현대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한국 현대시 낭송회는 4월 21일 금요일 밤 7시 UMASS 앰허스트 캠퍼스 센터 162-75실에서 개최된다. 매사추세츠 한국문화원장 유희주 시인은 "번역된 시가 웹사이트로 소개되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없으면 알려지기 쉽지 않다. 근처에 계시는 분은 미국인 친구들을 모시고 오서

서 한국의 문학과 노래를 만나시기 바란다" 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정한용, 한혜영, 장석주 이재무 시인의 번역된 시가 낭송된다. 이 시인들의 시는 전승희, 고유진, 이화현, 권순자 씨등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된 시이다.

시낭송 뿐만 아니라 노래도 곁들여 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해순씨와 최지원씨가 <걱정말아요그대>, <별을 헤는 밤>, <아리랑>등을 부른다.

학생회 부회장이자 노래를 담당하는 최지원씨는 "<걱정말아요그

대>는 한글가사와 영문가사를 섞어서 부를 예정이다.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광희와 개코가부른 <당신의 밤>을 랩으로 노래한다. 영문자막을 뒤에 띄우고 노래는 그대로 한글로 부른다. <아리랑>은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어 상의 후에 이곡 또한 한글과 영문을 번갈아 부를 예정" 이라고 밝혔다.

Korean Poetry Reading  
Friday, April 21, 2017, 7:00-8:30 PM  
UMASS Amherst : Campus Center Rm #162-75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클래식 챔버 앙상블 22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개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Oasis Café Music Night) 무료 공연이 4월 22일 7시에 보스톤 한인교회 ECC센터에서 열린다.

이번에 초청되는 그룹은 트럼본, 프렌치호른, 피아노로 구성된 클래식 챔버 앙상블 "Some Assembly Required" 팀이다. 독특한 팀명에

서 알 수 있듯이 제한된 레퍼토리에 구애받지 않고 매 시즌 게스트 아티스트를 초청해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주를 제공한다.

이번 시즌에는 "Theme and Variations" 라는 테마를 가지고 스트라빈스키의 목관악기를 위한 8중주, 같은 악기 구성으로 "Some Assembly Required" 를 위해 작곡된 올리버 카플란의 Krumpholtz Variations, 그리고 슈베르트의 유

명한 피아노 5중주 <송어>를 현악4중주가 아닌 목관4중주와 피아노 구성으로 바꾸어 연주할 예정이다.

일시: 22일(토) 오후 7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www.ecckcb.org](http://www.ecckcb.org)  
문의: 617.739.2663  
[ecckcb@gmail.com](mailto:ecckcb@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홍삼정 30g  
천녹삼 30g  
**무료선물**

청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혈액순환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모든 주문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사드 정말 유익하다면 더 많은 대화 있어야 - BC 사드 반대 간담회 열려

미국 순회 김성혜 원불교 교무, LA 시작으로 보스턴 강연 시민 활동가 비롯 80여 명의 한중 대학생들 뜨거운 관심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북핵 위기 고조가 한국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된 가운데 사드 배치 관련 문제가 보스턴 소재의 보스톤 칼리지에서도 논의되었다. 한국성주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김성혜 공동위원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LA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순회방문중인 김성혜 공동위원장은 10일 오후 7시 보스톤 칼리지(BC)의 테브린 홀에서 열린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반대 간담회에서 관련 영상과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스톤칼리지 인권과국제정의센터가 주최하고 MASS 피스액션, BC 한인 학생회 등 6개의 단체가 후원했다.

램프 림 보스톤 칼리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80여명의 학생 및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사드 배치에 반대를 주장하는 성주 시민들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에서는 900여 명의 성주시민이 사드 반대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거나, 성주와 김천 지역의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사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 후 이어진 강연에서 김 교무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한국을 우방이 아닌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반도 방어 목적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비관론자인 시어도어 파스틀 교수가 참여해 사드의 대한 과학적 무용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내용을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불참해 기대에 모자랐다는 평이 뒤따랐다.

한중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중국인 학생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지난 학기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경험한 중국인 학생 사니 씨(심리학 전공)는 “중국 언론은 이 문제를 애국심의 문제로 강조하는 탓에 중국 국민들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많이 따르는 편이지만, 지식인층이나 젊은 유학생의 경우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도 국가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한중 양국 모두 애국주의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 답했다.

강연을 마친 김성혜 교무는 “사드가 정말 유익하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성혜 교무의 통역을 맡은 이주연(사드한국배치반대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화 저지를위한 미국태스크포스 팀) 씨는 “학생들



이주연 (사드 저지 태스크포스)씨와 김성혜 원불교 교무(우측)는 보스톤 칼리지에서 열린 사드 반대 간담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 중국인 대학생 및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 80여 명이 자리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과 지역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사드문제를 알릴 수 있어 보람차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계기를 통해 사드를 저지하는데

미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는 소감을 남겼다.

itshunne@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2017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성황리에 개최

##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총영사상 주정수(11) 구본주(1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6회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수학경시대회가 4월 8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되었다. 약 9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응시한 이번 경시대회는 BB&N에 재학 중인 주정수 군(11학년)과 St Peter-Marian High School의 구본주 군(10학년)이 공동으로 총영사상을 차지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이하 과기협)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치러진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 학년별로 60분에서 90분 동안 시험을 치렀다. 모든 행사 참가자들에게

는 참가증과 간식이 제공되었으며, 시상식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도삼주 박사가 <학부모가 본 미국 대학 입시 이야기>라는 주제로, Math Game House 강혜정 원장이 <미래의 수학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행사를 지휘한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조진행 행사 위원장은 “수학경시대회가 단순히 수학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지역 한인들이 함께 모여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참가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한인 학생들을 서로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종성 Boston University 교수, 한순용 한국학교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회장,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이광석 영사, 이강원 북미 한인교수협회 (KAUPA) 회장 등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성적 우수자들을 시상하였다.

이 대회는 재미한인제약인협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시민협회,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 화음보스톤, 삼성전자, SK, Math Game House, MathWorks, Nuance Communications, 렉싱턴 불판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 동문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 가나다 순)에서 후원 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7년 수상자들과 시상자들이 함께한 기념촬영한 모습

### 학년별 수상자 명단

4학년		
Alex Kim	Lawrence School	1st
MyeongJun Shin	Baker School	1st
Austin Kim	McCarty-Towne Elementary School	3rd
Donghyun Kim	Countryside day school	Honor
5학년		
Andrew Song	Gordon School	1st
Euhyeon Ko	Merriam	2nd
Hyewon Suh	Pierce	3rd
Audrey Chun	Josiah Haynes elementary school	Honor
6학년		
Jiyeon Kim	Brown Middle	1st
Shane Lee	Carlisle Public School	2nd
Ephram Chun	Ephram Curtis Middle	3rd
Sunjae Kim	Wood Hill Middle	Honor
7학년		
BonJune Koo	St.Bernadette School	1st
Changmin Lee	St. Bernadette School	2nd
Dongwook Kim	Sharon Middle School	3rd
Joshua Lee	Heath	Honor
8학년		
Minjune Kim	Jonas Clarke	1st
Daniel Joh Kang	Oak Middle School	2nd
Shashank Jarmale	Locke Middle School	2nd
Jake Lee	Carlisle Public School	3rd
9학년		
Nathan Yoon	Sharon High School	1st
Eric Song	Moses Brown School	2nd
Hyunjun Ahn	BOSTON UNIVERSITY ACADEMY	3rd
10학년		
Bonju Koo	St Peter-Marian High school	1st
Dylan Kim	Acton Boxborough Regional high	2nd
Katherine Lim	Lexington High School	3rd
11학년		
Jung Soo Chu	BB&N	1st
Jae Hoon Yoon	Phillips Andover Academy	2nd
Sunmin Lee	Holy Name Jr/Sr High School	3rd
Hyunsoo Cho	Taft School	Honor

##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on.net

##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한국학교 협의회, 재외동포재단 실무자와 간담회

교장단, 온라인교사양성프로그램 교사자격조건 완화 요청 재단, 한국학교 정산보고 증빙서류 및 온라인 정산 요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지원부 이상학과장과 김영근사업이사, 보스톤을 방문하여 4월 9일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보스톤총영사관의 이광석교육영사와 NAKS 뉴잉글랜드협의회 한순용회장과 김현주부회장, 박지애총무,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남일교장, 보스톤감리교회한국학교 정에스터교장, 성요한한국학교 이현경교장이 참석해 한국학교 발전을 논의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재단과 한국학교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감시한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전통문화용품 지원 대상

청소년교류사업을 문의했다. 교장단에서는 재단이 지원하는 온라인교사양성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자격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교사, 교장 모국초청연수 시기와 기간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해외의 각 나라별 또는 지역별 특색에 따라 학기제나 한국학교의 규모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책을 위해 한국학교 정산보고시에 확실한 증빙서류 확보, 온라인정산 등을 부탁하였다.

또한 다음 일정으로 한인회관 건립 지원건으로 로드아일랜드를 방문예정인 재단측은, 이 지역의 각 한인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끝으로 오랜 미국생활을 통해 동포사회를 체험한 바있는 이영근이사는 협의회나 한국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동포 2세 교육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외한글학교 운영지원, 차세대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동포사회단체 육성지원, 동포 모국방문 초청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참가자 줄어드는 수학경시대회

청장년 이민자, 취업자 감소, 조기유학 감소 직격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보스톤 수학경시대회 참가자가 지난 2008년을 고비로 매년 점차 줄고 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과기협 수학경시대회는 처음 보스톤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국 경시대회의 모델이 되어서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주최의 전국적 경시대회로 발전했다.

수학경시대회의 본고장인 보스톤 지역은 매년 참가자들이 늘어났으며 지난 2008년 무려 211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사상최고 응시생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에는 141명으로 떨어졌다. 이 숫자마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해마다 약 10여명씩의 응시자들이 줄어 2017년에는 90여명으로 줄었다.

2008년 참가자의 반토막이 되어버린 2017년 수학경시대회는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윤정호 부회장이 다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10년만에 다시 과기협 뉴잉글랜드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올해 사전 온라인 등록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았다”고 말하고 참가자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역의 조기유학생의 감소가 한 원인을 차지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조기유학생의 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결국 이는 수학경시대회 참가자 감소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준비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취업자 감소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몇 년간 집행부를 맡았던 젊은 청장년들이 보스톤 지역에서 취업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타도시로 떠나고 있어서 다시 10년만에 집행부를 맡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스톤지역 청장년층 이민 유입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청장년과 자녀들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다. 수학경시대회 참가자 감소는 다른 의미로 한국학교 학생수의 감소를 반영한다. 한인사회가 이처럼 감소하는 추세에 대비해야 할 때

윤 준비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 재단과 한국학교협의회 간담회가 보스톤 탐보르드 허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지애총무, 한순용 NAKS-NE 회장, 남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교장, 이현경성요한한국학교교장, 정에스터 보스톤 감리교회한국학교교장, 이상학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팀과장, 김영근사업이사, 김현주 NAKS-NE 부회장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항공기 이용시 'Bumping'을 알아야 하는 이유

유료 항공권이라도 언제든지 탑승이 거부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바우처, 기프트 카드 등으로 보상 과도폭력으로 '범프'한 유나이티드 주가 폭락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실제 좌석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한 이유로 3천765명의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해 보딩까지 마쳤음에도 보딩 후 하선을 요구하는 것을 '범핑(bumping)'이라 하는데 사실상 이 같은 범핑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당수 사람들은 최근에서야 알았을 것이다. 때로는 탑승을 거부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범핑이라고도 한다.

베트남계 의사인 승객이 승무원들의 하선 요구를 거부하자 공항 보안경찰이 출동해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경찰들이 이 의사의 손을 잡고 질질 끌어내는 비디오가 SNS에서 퍼져나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항공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가치는 4월 10일 무려 8억달러의 곤두박질을 치며 항공사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곳곳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항공사들에게 실제 좌석보다 많은 초과티켓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티켓을 초과 판매하는 이유는 일부 승객들이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객이 좌석보다 많아지는 경우 일부 승객을 "범프(Bump)" 하게 된다

미 언론 ABC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미 항공사들은 4만여명의 승객을 범프했으며 이 수치는 자발적으로 좌석을 포기한 승객들을 포함하지 않는 수치이다. 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항공여행을 하는 경우 누구나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법규를 알아보자

## 자발적 좌석 양보(VOLUNTEERS)

티켓 판매가 초과됐을 때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할 자원자를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경우 여행 바우처, 기프트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항공사는 보상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대형항공사의 승객중 43만 4천명이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하고 보상을 받았다. 유나이티드의 경우 6만3천명이었다. 가장 많은 초과 티켓 판매는 델타에어라인으로 지난해 13만명이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했다.

자발적인 승객이 나서지 않을 경우 에어라인은 탑승을 거부하거나 승객들의 의사에 반해 "범프" 할 수 있다. 지난 9일밤 유나이티드 에어 루이스빌 행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항공사 중에 범프를 가장 많이 실행한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로 지난 한해 무려 1만 5천명을 하선시켰다.

## 보상(COMPENSATION)

보상은 승객이 다음 비행기 탑승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항공사가 승객을 1시간 내로 다른 항공기에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데려간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승객이 예정도착시간보다 1-2시간 늦게 도착하는 경우 항공사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편도 노선의 2배금액 최고 \$675까지 지불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2시간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편도의 4배 최고 \$1350까지 보상해야 한다.

## 강제하선을 피하는 법(AVOIDING GETTING BUMPED)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티켓의 승객부터 강제하선(bump)을 시킨다. 보



3월 보스턴에 내린 폭설로 항공편이 딜레이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LA공항 탑승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상금액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범프의 기준을 다음 비행기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고려한다. 특히 가족 그룹은 포함하지 않으며,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도 강제하선 시키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초과 판매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봄방학과 여름방학 시즌이다. 그러나 범핑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며 특히 기후가 나빠 항공편 취소가 되는 경우 더 많이 일어난다.

## 범프를 원하는 경우

범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부 승객은 이것을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항공사들이 충분히 많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이를 활용한다. 일부는 사전에 항공기 좌석이 매진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공항 탑승게이트 바로 옆좌석에 자리를 잡아야 항공사에서 바우처를 제시하는 경우 다른 승객이 이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다. 일단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항공편이 확실하게 배정된 좌석인지 점검해야 하며 또한 백을 체크인해서는 안된다.

hsb@bostonkorea.com

# 델타 항공 플로리다행 가족 범핑 대가로 \$11,000 지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범프 승객에게 \$800을 제시한 후 폭력적인 강제 하선을 시켰던 것과 달리 델타 에어라인은 범핑의 대가로 무려 \$10,000을 넘게 지불한 사례가 알려졌다.

포브스에 기고한 한 여행 작가의 글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비행기편 범프가족에게 무려 \$11,000을 지불했다.

델타 항공사는 당시 악천후로 수천 항공편이 취소됨에 따라 최악의 비행기 지연사태를 겪게 됐다. 금요일 아침 델타 항공은 항공 보딩이 1시간 정도 지연된 후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액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시작했다.

탑승구에는 무려 60여명이 남은 자리 탑승을 위해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델타항공은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900 기프트카드를 제시했고 여행작가의 남편은 한 번 고려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여행작가는 휴가를 연기하는 대가로 너무 낮기는 하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여행 일정이라 고려해볼만 하다고 답했다. 남편은 게이트 직원에게 가서 티켓당 \$1,500이면 양보하겠다고 했고 직원은 \$1,350를 제안했다.

3인가족에 \$4,050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에 응낙했고 항공사는 무료 호텔에 저녁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공항에서 집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덕에 다음날 항공편의 컨펌드 시트(confirmed seat)를 약속 받았다.

토요일 다시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비행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 델타는 또 자발적 좌석 양보자를 원했다. 또 개인당 \$1,300 보상에 좌석을 양보했다. 항공사측은 일인당 \$15의 점심값과 왕복 택시비 \$50까지 제공했다. 항공사측은 일요일에 확실하게 좌석을 배정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비행기가 출발후 계속 일요일 항공티켓 발권을 기다렸지만 항공사측은 일요일 항공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항공사측은 화요일까지 모든 좌석이 전석 매진(실제로는 오버부킹)됐다고 알렸다. 항공사 직원에게 또다시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하고 여행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직원은 반갑게 개인당 \$1,000의 보상을 제공했다.

hsb@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이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한국어 문자 가능)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 MLB 개막 후 1주, 희비 엇갈린 한국인 메이저 리거

오승환, 김현수, 추신수 25인 로스터 진입, 류현진도 재기 도전 박병호, 황재균, 최지만 마이너리그 행, 강정호는 거취 불투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2017년 메이저리그(MLB)가 25인 로스터와 함께 개막한지 한 주가 지난 가운데 한국인 선수들의 명암이 갈렸다.

올해 개막로스터에 포함된 한국 선수는 총 4명이다. 작년 최고의 활약을 보인 오승환(35세 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비롯해 만형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이름을 올렸다. 부상으로 2년을 쉬 류현진(30·LA 다저스)도 5선발로 복귀했다. 반면 시범경기에서 활약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와 황재균(29·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로 팀을 옮긴 최지만(25)은 마이너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MLB 입성 - 오승환, 김현수, 류현진, 추신수〉  
오승환은 시범경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카디널스로부터 마무리로 낙점되었다. ESPN은 오승환이 올해 올스타전에 선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오승환이 올스타전에 나선다면 2002년 김병현(당시 애리조나) 이후 15년 만에 한국인 올스타 탄생이다. USA투데이는 오승환을 MLB의 다섯 번째 최고 마무리 투수로 선정했으며 포क्स포츠는 한술 더 떠 세이브 1위에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동점 쓰리런을 허용하며 불륜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은 이후 등판에서도 연속 실점을 허용해 불안한 출발을 시작했다.

작년 시범경기 부진으로 MLB 입성에 잡음이 있었던 김현수는 올해는 무난히 MLB에 입성했다. 그러나 쇼월터 감독은 그를 작년 시즌과 같이 그를 우완 투수 전담으로 조이 리카드(좌완 투수 전담)와 함께 플레튼으로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토론토와의 개막전에서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8일 양키스 전에서는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타율을 .333으로 끌어올리며 경기 후 MVP로 선정되어 현지 중계진과 인

터뷰도 가졌다. 류현진은 올해 재기를 노린다. 레이트 커쇼, 리치 힐, 마에다 캔타가 다저스의 1, 2, 3선발로 낙점된 가운데 류현진 5선발로 낙점되었다. 비록 시범경기 동안 2패를 당하긴 했지만 구속이 92마일까지 회복된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 8일 류현진의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는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타선을 상대로 4와 2/3이닝동안 6피안타(1홈런) 2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되었다. 하지만 오랜 공백 끝에 첫 실전 등판인데다, 최고구속이 93마일에 위협적인 체인지업도 구사해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추신수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178을 기록하며 역대 2번째의 최악의 시범경기를 보냈다. 시범경기 1할대 타율은 2014년 시즌(.161) 이후 2번째다. 그는 팀 내에서 3번째 고액 연봉자인 만큼 MLB 입성은 문제 없었다. 그러나 고액연봉자로서 그는 아직까지 연봉에 걸맞은 시즌 활약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과 잦은 부상이 걸림돌이다. 텍사스는 잦은 그의 부상을 막기 위해 우익수에서 지명타자로 돌릴 것을 천명했다. 시즌 후 타율은 조금 상승했으나 7경기 26타석 6안타 타율 .231의 성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마이너에서 시작하는 선수들〉 - 황재균, 박병호, 최지만  
황재균은 시범경기에서 5홈런 타율 .333의 신인답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올 시즌을 마이너 리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3루 주전보다 다양한 백업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원했던 팀의 주문에 황재균은 시범경기 동안 3루뿐 아니라 생소한 1루와 좌측 외야를 오가며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다. 하지만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황재균은 SF선수들이 뽑은 시범경기 최고 신인상에 뽑히며 새로운 팀에서 무서운



작년 시즌 카디널스의 주전 마무리를 꿰찬 오승환(사진)을 비롯해 추신수, 김현수, 류현진이 올해 MLB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 = MLB.com 제공)

적응력을 보였다. 복수의 지역 언론들은 황재균이 7월 이전에 MLB에 입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호는 시범경기에서 팀내 최다 홈런과 타점, 타율 .353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마이너 리그행을 통보받았다. 트윈스는 “투수가 한명 더 필요했다” 며 이유를 밝혔지만 ‘스타트리뷰’ 을 비롯한 지역언론은 “도움도 안 될 투수를 뽑느라 박병호가 떨어졌다”, “트리플A 타자(로비 그로스먼)보다 박병호가 훨씬 위협적” 이라고 평했다. 박병호를 대신해 지명타자로 나선 그로스먼이 MLB에서 부진을 보이는 한편 박병호는 마이너리그에서 첫경기 2안타 2득점 등 3할 7푼 타율의 맹타를 휘둘렀다. 그러나 11일 경기 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메이저리그 승격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LA 에인절스에서 양키스로 동지를 옮긴 최지만도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최지만은 시범경기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았지만 2할 타율의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미구에 빠진 강정호의 거취〉  
강정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닥뜨렸다. 지난달 3일 열렸던 재판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일이 꼬였다.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던 사실이 뒤늦

게 알려지며 팬덤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설상가상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고, 재발급 과정에서 재판기록을 누락해 비자 신청이 각하되었다. 강정호가 당장 미국으로 가더라도 4주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시범경기 참가하지 못해 몸 상태가 떨어졌을 것을 예상하면 지금의 상황은 최악이다.

- 〈한국인 선수 시범경기 성적〉
- 강정호 : 기록없음
  - 김현수 : 24경기 59타석 16안타 1홈런 8타점 4득점 12삼진 7사구 타율 .271 출루율 .353
  - 박병호 : 19경기 51타석 18안타 6홈런 13타점 10득점 15삼진 6사구 타율 .353 출루율 .414
  - 최지만 : 20경기 30타석 6안타 0홈런 4타점 2득점 8삼진 5사구 타율 .200 출루율 .333
  - 추신수 : 20경기 45타석 8안타 0홈런 2타점 5득점 14삼진 7사구 타율 .178 출루율 .315
  - 황재균 : 27경기 48타석 16안타 5홈런 15타점 7득점 9삼진 1사구 타율 .333 출루율 .353
  - 류현진 : 4경기 14이닝 0승 2패 방어율 2.57 12삼진 10피안타 1사구 2피홈런
  - 오승환 : 5경기 6이닝 0승 0패 0세이브 방어율 4.50 7삼진 5피안타 0사구 2피홈런

itshunne@bostonkorea.com

##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 (1회 \$100)**  
4/19(수), 4/22(토)

- 갈비탕: 32oz 2통
- 김치콩나물국: 32oz 2통
- 족발: 24oz
- 무생채: 24oz
- 골뱅이무침: 16oz
- 계란말이: 16oz
- 소시지야채볶음: 16oz

(알려지가 있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요리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일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치킨 앤 라이스에서 대장균 감염 발생

## 보스톤 지역 레스토랑과 푸드 트럭 영업 정지 대장균 감염되면 위경련, 구토, 설사 등 증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 (Chicken & Rice Guys) 음식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치킨 앤 라이스는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푸드 트럭 영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보스톤 시 정부는 치킨 앤 라이스 음식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11일, 공식 확인했다. 7건은 푸드 트럭과 연관이 있으며, 최소한 1건 이상은 울스턴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 인스펙션 서비스의 윌리엄 크리스토퍼 주니어 담당관은 “우리는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치킨 앤 라이스의 음식을 먹고 감염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스톤 인스펙션 서비스는 치킨 앤 라이스의 영업 면허를 임시 정지시켰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을 순회하며 영업을 하던 치킨 앤 라이스 소유의 4대의 푸드 트럭도 11일 오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다.

치킨 앤 라이스 체인점 중에서는 유일하게 메드포드 지점이 영업 중이다. 메드포드 지점은 보스톤 시의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스톤 인스펙션 서비스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거나 영업에 관여할 수 없다.

보스톤 인스펙션 서비스에 따르면, 보스톤 시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11일부터 치킨 앤 라이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스톤 보건부 직원들은 울스턴 지점을 방문하여 대장균 발생

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보스톤 인스펙션 서비스는 치킨 앤 라이스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향후 일정과 사후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치킨 앤 라이스에서 발견된 대장균 O157:H7은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장균의 종류다. 감염 증상으로는 위경련,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이후 5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나 이 대장균에 감염된 사람 중 5%-10%는 신장 기능이 정지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치킨 앤 라이스 음식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어 보스톤 지역 레스토랑과 푸드 트럭 영업이 중단되었다



## MA주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 발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상원 의회에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의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이 발의된 것은 비슷한 법안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폐지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인터넷 사생활 보호 정책은 지난 주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사라졌다.

매사추세츠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인 브루스 타르 의원은 “연방 정부가 인터넷 소비자의 사생활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회사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외에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몬타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진행 중이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마이클 리 모기지

Norwich Commercial Group, Inc. | NMLS #71655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론: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리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홈임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98

####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89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미국내 인기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미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지사임이 다시한번 증명됐다.

온라인 여론조사인 모닝 컨설트 풀이 2500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무려 7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단 17%에 불과했다.

찰리 베이커의 지지율은 같은 회사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지지율 7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당시에도 단 18%만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조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사우스 다코다와 메릴랜드 주지사에 이어 3번째 인기 높은 주지사였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올해 3개월동안의 조사에서 74%의 지지율을 기록한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를 제치고 가장 인기있는 주지사로 등극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은 주지사들은 베이커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텃밭인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인 경우가 4곳 중 3곳에 달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비록 공화당 주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성소수자 등 소수민족의 권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쏟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편지를 전달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매사추세츠 상, 하원과 뛰어난 협치를 기록하며 별다른 갈등없이 주를 이끌었다. 베이

커 주지사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게 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민주)은 계속 지지율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워렌 상원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율과 38%의 반대율을 보였다. 워렌 상원의원인 지난해 4월만해도 61%의 지지율에 반대는 27%에 불과했었다.

또 다른 연방상원의원인 에드워드 마키는 55%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20% 이상이 그가 어떤 성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아직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뉴햄프셔 크리스 스누누(공화) 주지사는 현재 그의 정책을 의회를 통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는 등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를 잘 모르거나 이런 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햄프셔 주지사는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에 나선다.

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55%의 지지율을 기록해 연방 상원의원 매기 하산(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높았다.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 진 사틴(민주)은 5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모닝컨서트 여론조사는 등록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의 온라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월까지 실시된 조사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총 2,462(오차 2%)명이 참여했으며 뉴햄프셔에서 644명(오차 4%)이 참여했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커먼웰스 애비뉴 브리지 교각을 보수하기 위해 오는 여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일 반 동안 BU인근의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 올여름 커먼웰스 애비뉴 BU 인근 구간 폐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여름 커먼웰스 애비뉴의 차량통행이 켄모어스퀘어(Kenmore Square)부터 팩커즈코너(Packard's Corner)까지 양방향 전면 폐쇄된다. 다시말해 올여름 차로 보스톤대학(BU)을 비롯한 여러 커먼웰스 애비뉴에 있는 식당을 가려면 뒷골목을 이용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매사추세츠 교통부(MassDOT)는 커먼웰스 애비뉴 브리지 교각을 보수하기 위해 오는 여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일 반 동안 BU인근의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이 커먼웰스 애비뉴는 그러나 MBTA 버스와 긴급차량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들에게는 여전히 개방되므로 해당 구간의 식당 등 비즈니스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보스톤과 케임브리지를 잇는 BU브리지까지 일정 시간동안 폐쇄될 예정이다. 그린라인 B라인 트롤리는 MBTA버스로 대체될 전망이다. 커먼웰스 애비뉴 브리지밀을 통과하는 매스틴파이크(90번 도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차선이 폐쇄되고 약 2주간 주말 우스터 MBTA 커뮤터 레일과 암트랙 서비스가 중단된다.

교각 수리팀은 폐쇄 기간동안 24시간 동안 몇 개의 작업조를 나눠 풀 가동하며 빠르게 굳는 시멘트를 사용해 작업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수리팀은 커먼웰스브리지의 콘크리트 교각과 받쳐주는 경간의 철제빔을 교체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65년에 설치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MR. SUSHI ARLINGTON



# 781.643.4175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 BUSINESS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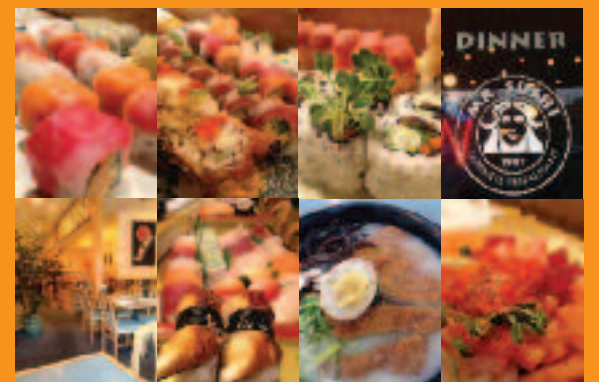
Monday	11:30AM - 10:00PM
Tuesday	11:30AM - 10:00PM
Wednesday	11:30AM - 10:00PM
Thursday	11:30AM - 10:00PM
Friday	11:30AM - 10:00PM
Saturday	11:30AM - 10:00PM
Sunday	11:30AM - 09:30PM

SINCE 1987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및 한식  
지금 경험하세요!

### Catering 주문 환영

TD Garden (Celtics & Bruins Game VIP 일식 담당)  
The Colonnade Boston Hotel,  
Winchester Country Club 일식 출장 연회 다수 경험



# "FBI '러시아 유착' 트럼프 측근 감시영장 받았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대선캠프 소속원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감시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11일 사법당국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영장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FBI와 법무부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외교 정책 자문을 맡고 있던 카터 페이지가 해외 정부의 '에이전트', 즉 러시아 첩보원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에 페이지의 접촉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으며 관련 증거를 들고 FISC 판사를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법원은 페이지를 감시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허가했다.

이것은 FBI가 트럼프캠프-러시아 정보기구 접촉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WP는 강조했다.

법원에 영장 청구를 설득할 만한 '트럼프캠프-러시아 유착' 증거를 FBI가 지난해 이미 갖고 있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지는 트럼프캠프 혹은 러시아와 관련한 어떠한 잘못도 부인

하고 있다. 페이지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법원의 감시영장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자 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페이지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WP는 법무부가 추후 페이지를 기소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icef08@news1.kr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시 공화당 대선후보) 대선캠프에서 외교자문을 지낸 카터 페이지

# 틸러슨 "칼빈슨호, 한반도 인근서 특정한 목표 없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반도 인근 수역에 배치된 미국의 주력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현재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전단은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렉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12일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담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칼빈슨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주요 해군 전단, 특히 함모 칼빈슨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킨 것은 우리 군에 의해 계획됐다. 전단은 그곳에서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현재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다. 난 현 시점에 전단의 위치를 기반으로 어떤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과 회담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며 한반도 비핵화를 일궈 낼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며 틸러슨 장관과 이 점에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 트럼프 "배년, 좋지만 캠프에 늦게 합류한 사람"

### 배년, 후원자 만나 일자리 물색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측근' 스티브 배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는 경선 시절부터 트럼프의 오른팔로 활약하며 백악관을 좌우한 배년이 최근 뒷선으로 밀려났다는 풍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배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스티브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가 경선 캠프에 늦게 들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화당 경선에서) 상원의원들과 주지사들을 모두 꺾었을때도 나는 스티브를 알지 못했다. 나의 전략가는 내 자신"이라고 말했다.

배년은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를 만든 극우인사.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약 3개월간 일하면서 트럼프의 총애를 받았고 백악관에 입성해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 극우적,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주도하며 '배년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렇던 그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들어오면서 위

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쿠슈너와 배년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화해의 자리를 가졌지만 사실상 배년이 밀려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배년은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도 자리를 잃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자리에서도, 시리아 폭격 후 상황실에서도 끝자리나 문가에 앉아 낮은 위상을 실감케 했다.

캘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배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콘웨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은 야당'이라는 배년의 발언과 관련해 "언론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원치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자 배년도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배년이 퇴임 후 일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jyj@news1.kr



스티브 배년 백악관 수석전략가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어 (매일상, 화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가족에게 한국 최고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풍성한 대어는 최합도 현수막
- 다양한 수제 소품들
- 엄밀히 대응으로 만든 가래 쟁이
- 국내산 유기농식재료 사용, 공기
- 최정확도 위생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들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유나이티드항공 대표 "사퇴없다"... 피해승객 소송불사

### "더 나은 회사 만들것"...다오, 법원에 증거보존 요청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항공기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물의를 빚은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대표가 사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스카 무노스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12일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사내 문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무노스 대표는 "나는 더 나은 유나이티드를 만들기 위해 고용돼 이를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10일 시카고 오페라 국제공항에서 베트남계 중년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려 논란을 빚었다. 사측은 캔터키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던 341편에 뒤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승객 중 4명을 임의로 택해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를 끝까지 거부한 데이비드 다오(69)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공개되며 전 세계인의 분노를 샀다.

무노스 대표는 인터뷰에서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다시는 공항 경찰을 이 같은 일에 동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무노스 대표는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며 "아직 다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날 생긴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자인 다오는 소송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다오의 변호인단은 시카고 쿡 카운티의 지방법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과 승객·승무원 목록 등 증거 보존을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다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리를 지정 받았음에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를 맡은 콜보이 앤 디메트리오 소속 변호사는 "다오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며 그의 가족들이 13일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항공업계가 예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습처럼 행하던 '오버부킹'(정원 초과예약)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 무노스 대표에게 사건 조사를 통보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미국 교통부에 오버부킹을 가능케 하는 현행 제도 검토를 요청했다.

항공업계는 오버부킹이 '정당한 사업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이번 사건은 오버부킹에 대한 것이 아닌, 그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며 날씨와 같은 요인에 따라 반드시 오버부킹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oho0901@news1.kr



유나이티드항공이 10일 시카고 오페라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341 항공편에서 베트남계 데이비드 다오(69)가 공항경찰에 의해 강제 하차되는 모습



11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국제 공항에서 시민들이 유나이티드항공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유나이티드항공 사태 '공방'... 오버부킹 문제없다?

### 보상금 체계 수정 요구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승객을 함부로 대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사가 결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평론가 엘리야후 페데르만은 11일자 폭스뉴스 기고에서 69세 베트남계 미국인 남성을 강제로 끌어낸 행동은 부당하지만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책임으로 몰수 없다고 주장했다. 탑승객을 끌어낸 사람들은 시카고 항공국 소속 경찰들이었기 때문이다.

오스카 무노스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사건 직후 피해 승객에 대한 언급없이 "고객 재배치(re-accomodate)에 사과한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산데 대해서도 "향후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는 회사 입장에서선 성명 발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항공사의 오버부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원 초과'를 이유로 탑승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건은 총 6만 2895건에 달하는데 이중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된 사례는 3765건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도 오버부킹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항공기의 평균 탑승률은 85%대인데 항공사는 오버부킹을 통해 빈좌석으로 운행할 위험을 최대한 낮춰 항공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만약 오버부킹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일반 항공

료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의 대처를 모두 합당하다고만 볼수는 없다. 애초에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상태에서 정원 초과를 파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탑승한 승객들 입장에서선 제 시간에 항공기가 출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시장 전문가 모리 벤 사하르는 경제지 포브스에 쓴 기고문에서 항공기 보상금 규모를 최대 1350달러(154만원)로 규정한 미국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승객에 탑승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자원을 찾기 위해 보상금을 경매 방식으로 계속해서 올리거나, 향후 탑승 혜택을 주는 다양한 안을 승객에 제시해야 한다고 사하르는 주장했다.

유나이티드항공사는 맨 처음 400달러 보상금을 제시한 뒤 이후 800달러에 이르기까지 자원자가 나오지 않자 추첨으로 승객 4명을 강제로 내리게 만들었다.

yjw@news1.kr



오스카 무노스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19th President Elections

# 재외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Let the Voice of Overseas Koreans be Heard

## 4.25~30

투표소 운영시간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http://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http://mofa.go.kr),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For more information, visit [ok.nec.go.kr](http://ok.nec.go.kr), [mofa.go.kr](http://mofa.go.kr) or  
the website of your local embassy.

- |  |  |
|--|--|
| <b>투표대상</b><br>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br>Polls are set up for registered absentee voters and overseas voters.  |
| <b>준비물</b><br>Require Documents                  |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주국의 정부기 발행한 증명서 등)<br>ID Card with Photo(passport, resident card, public official ID card, driver's license, or any certificate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siding country)<br>신분증에 관한 국제제출의 규정인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십시오"가 기재되어 있습니다.<br>ID Document is a document presented in original copy of documents required for verifying nationality. |
| <b>투표장소·기간</b><br>Polling Places & Voting Period |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투표소<br>(300 Washington Street, 2nd Fl., Newton MA 02458)<br>매일 08:00 ~ 17:00 (토, 일 포함)  |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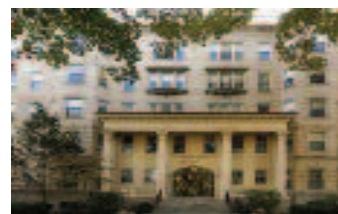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 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우병우 부실수사 후폭풍...다시 고개드는 김수남 퇴진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검찰 수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난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내 인적개혁과 함께 검찰총장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데에는 검찰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처음 맡은 특별수사팀을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에게 맡긴 것부터가 예고된 패착이었다는 지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활동 종료 직전에야 소환 조사하는 시늉만 냈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물론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과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지만 검찰은 관련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檢, 우병우 개인비리 맹탕 조사... 수사·처벌 의지 없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를 모두 영장청구서에서 빼버렸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를 범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와 처벌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다수 전문가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은 혐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일정부분 처벌에 한계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직권남용,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의 비위혐의 등도 엄정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과거 정운하 문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수사 대상이 기존 검찰까지 확장되는 게 부담되는 상황이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기 곤란한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꼭 수사 범위 확대 부담 때문이 아니라도 직권남용·직무유기가 입증이 어렵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며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검찰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수사를 충실히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총장이 연루됐거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는 세간의 풍문은 차마 믿기 어려운 얘기"라며 검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적청산 필요성 ↑...검찰총장에게 향하는 책임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사퇴설로 곤욕을 치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으로 또다시 책임론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처음 사퇴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성역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검찰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나마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검찰 수뇌부와 연루돼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구속영장 청구서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검찰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원로들의 지적

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해 놓은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총장의 진퇴를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장 본인이) 올바르게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스스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판단한 뒤 결정할 그분(검찰총장)의 인격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과 연루돼 검찰총장이 외부의 비난 때문에 마지못해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둘러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오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 영장기각 사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 수사와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듣기 민망할 정도"라며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부 인적청산을 하고 털고 갈 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우병우 영장기각 불똥, 검찰 넘어 법원 향해

특검관계자 "직권남용 뒷받침할 진술증거 있다" 증거인멸 정황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며 기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차적으로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영장기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제는 법원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으로 옮겨간 비판의 내용은 대체로 3가지다. 즉 '형평성의 문제' '직권주의 외면'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으로 요약된다.

우선 우 전 수석의 주된 범죄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로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범죄사실은 8건에 이른다. 반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단 한건만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의아함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진술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증거 등이 있는데 왜 구속이 안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진술증거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보장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장심사에서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직권주의' 또는 '직권탐지주의'는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소송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검찰이 흑여 부실한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등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에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문자 그대로 문리해석을 통해 엄격 적용한다고 해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만 있어도 구속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우 전 수석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상식선의 얘기"라며 "법원의 이런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도 여론 눈치 보는 법원에 억울하게 당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jurist@news1.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 자정능력 상실·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조응천 의원"민주당 집권하면 수사·기소권 분리"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애초부터 이번에 영장이 안 나올 것이라 봤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에서 한발짝 더 앞으로 나간 게 없는 것 같다. 제대로 수사를 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나 특별수사본부장, 대검 차장 등 검찰의 제일 핵심부가 우병우와 지난 2년간 어떻게 내통을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검찰권을 외국에서 행사했느냐도 밝혀져야만 우병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밝혀지는 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죽은 권력, 김빠진 권력을 하이어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시했던 조직"이라고 언급한 뒤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 내려오긴 난 이후에 무방비 상태가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물려준 수사기록을 가지고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밖에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세계 전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스스로 견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빨리 특검 2기를 작동해 권력만 바라보고 주권자인 국민을 내팽개치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수사하고 우병우는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sun@news1.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14 - APR. 20, 2017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 YOUR NEW FAVORITE EASTER TREAT!

Lighten up your Easter with fluffy, cute egg sushi. So much fun to make and delicious to eat.

H마트가 소개하는 부활절 맞이 초간단 레시피! 가족들과 함께 계란으로 부드럽고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b>\$1.29</b> lb.</p>	<p>NATURE'S Tofu 자연달은 두부 Soft/Firm/Silken - 14oz./pkg. <b>\$0.99</b></p>	<p>Yellow Banana 옐로우 바나나 <b>\$0.39</b> 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Jaffa Jaffa Mandarin 자파 만다린 <b>\$1.69</b> lb.</p>
<p>Gobo 우엉 <b>\$1.99</b> lb.</p>	<p>Seedless Red Grape 씨없는 적포도 <b>\$1.69</b> lb.</p>	<p>Ginger 생강 <b>\$1.29</b> lb.</p>	<p>Ya Pear 야배 <b>\$1.29</b> lb.</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b>\$1.29</b> lb.</p>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육두께 <b>\$6.99</b> lb.</p>	<p>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뽕갈비 <b>\$11.99</b> lb.</p>
<p>Hand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고기이름 주께 돼지 생목살 <b>\$4.99</b> lb.</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임살 스테이크) <b>\$6.99</b> lb.</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 스틱 <b>\$1.49</b> lb.</p>	<p>Marinated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양념 삼겹살 <b>\$4.99</b> lb.</p>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Shrimp 머리있는 새우 32-40% FRI/SAT/SUN ONLY 14/15/16 ONLY <b>\$5.99</b> lb.</p>	<p>Silver Pomfret 은쟁어 <b>\$8.99</b> lb.</p>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FRI/SAT/SUN ONLY 14/15/16 ONLY <b>\$4.99</b></p>	<p>Pollock Fillet 동태 전갈 6-8oz. FRI/SAT/SUN ONLY 14/15/16 ONLY <b>\$1.99</b> lb.</p>
<p>SU-YUP Yellow Tail 수연 냉동 방어 FRI/SAT/SUN ONLY 14/15/16 ONLY <b>\$1.99</b> lb.</p>	<p>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 활황어 FRI/SAT/SUN ONLY 14/15/16 ONLY <b>\$14.99</b> lb.</p>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Young Gi Medium Rice 정기대 18 lbs. <b>\$9.99</b></p>	<p>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oz x 18pack <b>\$9.99</b></p>
<p>KWANGCHUN Green Tea Seaweed Laver 광천 농림 녹차김 1.7oz x 1000/box <b>\$9.99</b></p>	<p>HORMEL FOODS Spam 스팸 All Varieties 12oz. <b>2\$5</b> cans/box</p>

### Big Brands SUPER SAVINGS!

하이마트 우수 브랜드 모음전  
가정에서 사랑받는 우수 브랜드들을 한자리로 모아 특가로 만나게 하는 특별한 기회로 준비했습니다. (14일부터 23일까지)  
APR. 14th - APR. 23rd, 2017

<p>HARU HARU Medium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밥 15 lbs. <b>\$9.99</b></p>	<p>SINSENG Red Pepper Paste + Soybean Paste 산성 고추장 + 된장 6.6 lbs. - 2.2 lbs./pkg. <b>\$12.99</b></p>	<p>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s. <b>\$3.99</b></p>	<p>HANDHEIM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해오름 정지 꽁치 14 lbs. <b>2\$3</b> cans/box</p>	<p>FOODO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b>2\$5</b> lb./box</p>
<p>HANDHEI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b>\$4.99</b></p>	<p>GI Biting Dumpling 기 베이고 함고자 만두 Pork - 32oz./Box - 24oz. <b>\$8.99</b></p>	<p>OLICO Pocky 올리코 포키 Chocolate - 1.5oz./Strawberry - 4.oz. <b>\$2.99</b></p>	<p>OSUNG Veg Chips (25Pack) 오성익스 초스낵 튀김 25팩 All Varieties 1.6 lbs. <b>\$12.99</b></p>	<p>BINGGAE Meats 빙고래 메트 Veg/Strawberry/Sausage - 8oz./1.5oz. <b>\$4.99</b></p>
<p>SCOTT Extra Soft Tissue 스캇 화장지 1300/pkg. <b>\$4.99</b></p>	<p>TOON Tea Drink 투온 드링크 All Varieties 8.33oz. <b>\$3.99</b></p>	<p>Beer Glass 맥주 잔 42oz./lot. <b>\$1.59</b> +50.00</p>	<p>Brown Flower Tea Set for 3 삼구연꽃 분홍 차 세트 3인 차기 200/pkg. <b>\$16.99</b> +50.00</p>	<p>Sheep Washable Slippers 양모니 기성화(세탁 가능) 2/size <b>\$6.99</b> +50.00</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et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et item. All prices exclude special order and credit cards. (FRI/SAT/SUN ONLY)  
HAWT BURLINGTON STORE -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1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세월호 3주기, 대형리본도 노란 등불되어 빛났다

##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사지 석탑등(燈) 점등식'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장엄등이 빛나는 가운데 세월호의 슬픔을 담은 세월호 리본도 노란 등불이 되어 함께 빛났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음달 3일의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미륵사지 석탑등(燈)'의 점등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천태종·진각종·관음종 등 주요 불교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과 2000여명의 불자가 모인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치러진 점등식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

모하는 의미로 특별히 설치된 세월호 리본등도 켜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점등식에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존엄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과 우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의 고귀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지혜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측은 "점등식을 하며 세월호 희생자들도 추모하자는 의미로 노란

작은 등들을 모아 특별 설치했다"면서 "세월호 리본등은 한시적으로 점등식 날만 켜진다"고 밝혔다. 미륵사지 석탑등과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가로연등은 다음달 4일까지 서울 밤거리를 밝힌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의 행복을 발원하는 의미로 불교의 고유한 전통이다. 올해 광화문 광장에 밝혀진 미륵사지 석탑등은 국보 제11호이자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제작됐다.

ungaungae@news1.kr



대한불교조계종 불자 2000여명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5월3일) 기념 '미륵사지 석탑 등 점등식'에서 연등을 들고 탑돌이를 하고 있다. 석탑등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등이 놓여져 있다

# 세월호 외부서 유류품 잇달아 발견... 고압세척 중 유류품 소실 우려 없나

## 경찰 물대포 36배에 달하는 수압으로 선체 세척 해수부 "철저히 감독하지만 100% 단언 못 해"

(목포=뉴스1) 최동현, 박윤식 기자 = 고압세척기를 통한 세월호 외벽 세척 도중 유류품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외벽 세척 도중 유류품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세월호 육상거처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수색 체제'에 돌입한 현장수습본부는 13일 오전 8시부터 고압 세척기 6대와 고가작업차 등 세척 장비를 설치,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외부 세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6대의 고압세척기에서 쏟아지는 물의 수압은 500바(bar)에 이른다. 이는 옥내소화전의 수압(2바)의 250배,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연결송수관의 평균 수압(5바)의 100배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물대포 수압(14바)보다 36배나 강한 세기다.

한편 해수부는 12일 선체 외부 지장물 제거 도중 선미와 틈새에서 안경과 화장품이 든 파우치를 발견했고, 세척작업이 시작된 13일 오전 11시쯤에도 선체 외부에서 후드집업 하나와 담요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화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500바(bar)로 분사되는 물의 압력은 유류품이 맞고 튕겨 나갈 경우 찾기 어려운 정도의 세기"라며 "이 정도 세기의 물에 유류품이 적중되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선체 외부에서 유류품이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초고압의 세척과정에서 유류품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고압력으로 분사되는 수압으로 인한 충격 여부에 대해서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고압세척기 6대를 테스트한 결과 선체 변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 "단 하나의 유류품도 파손되거나 유실되지 않으리라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척 전 준비작업 당시 드론 1대를 날려 세월호 전체를 구석구석 촬영했고 육안으로도 살살이 훑었다"며 "세척 도중 유류품이 유실될 경우를 대비해 △바닥에 방수포 설치 △폐쇄회로(CC)TV 촬영 △6명의 감독관 수시 검토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dongchoi89@news1.kr



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세월호가 거처된 전남 목포 신항에서 본격적인 선체수색을 위해 고압세척기로 세월호에 쌓인 이물질들을 제거하자 녹색 갑판이 드러나고 있다

## 국민들 뇌리 또렷히 각인된 '세월호 녹색갑판' 다시 모습 드러내

### 선체 외부세척 작업 이틀간 계속

(목포=뉴스1) 박영래, 최동현 기자 = 3년 전 참사 당시 온 국민의 뇌리에 또렷하게 박혀 있던 세월호의 녹색 갑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외부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세척을 시작했다.

외부 세척작업은 선저(배 밑바닥)와 객실을 포함한 상갑판에 물을 뿌려 선체에 남은 진흙과 염분,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내수색을 담당한 코리아셀비지는 이날 오전부터 고압세척기 6대와 고가작업차량, 지게차 등 세척장비를 동원했다.

작업자 12명과 보조인원 2명을 투입해 선저부분 2개조, 객실부분 4개조로 나눠 상부부터 세척을 시작했다.

세척수 해양유입 방지시설을 설치돼 사용된 세척수는 모두 탱크에 저장되면 세척작업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세척작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오후 무렵에는 3년 전 색깔을 그대로 간직한 녹색의 상층부 갑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3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었지만 색깔은 그다지 바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선수 쪽 갑판은 3년 전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먼저 버리고 탈출했던 장면이 해경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갑판이다.

멀리서 세척작업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들은 당시의 아픈 기억에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세척작업과 병행하는 내부수색 준비는 14일 착수한다.

yr2003@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b>나원태</b>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b>제이슨전</b>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b>신보경</b>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b>줄리전</b>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b>비비안유</b>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b>Residential</b></p> <p><b>Single Family</b></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b>\$1,699,000</b></p>	<p><b>Residential</b></p> <p><b>Condo</b></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b>\$691,000, \$999,000</b></p>	<p><b>Commercial</b></p> <p><b>살롱 &amp; 스파</b></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b>\$2,500</b> Asking <b>\$45,000</b></p>	<p><b>Commercial</b></p> <p><b>한식&amp;일식 식당</b></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b>\$450,000</b></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b>\$1.39M SOLD</b></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b>\$65,000</b></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b>\$150,000</b></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b>\$30,000</b></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b>\$40,000</b></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b>\$225,000 SALE PENDING</b></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b>\$3,400 RENTED</b></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b>SOLD</b></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b>SOLD</b></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b>SOLD</b></p> <p>11. 미림 식품 : Allston <b>SOLD</b></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b>SOLD</b></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b>SOLD</b></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b>SOLD</b></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b>RENTED</b></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b>RENTED</b></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b>RENTED</b></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b>SOLD</b></p> <p><b>NEW</b>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b>\$165,000</b></p>	
<p><b>Commercial</b></p> <p><b>한식&amp;일식 식당</b></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b>\$599,000</b> <small>Price Reduced</small></p>	<p><b>Commercial</b></p> <p><b>일식당</b></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b>\$120,000</b> <small>Price Reduced</small></p>	<p><b>Commercial</b></p> <p><b>컨비니언스 스토어</b></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b>\$140,000</b></p>	<p><b>Commercial</b></p> <p><b>비즈니스 콘도</b></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b>\$509,000</b> <small>Price Reduced</small></p>	<p><b>Commercial</b></p> <p><b>한국식당</b></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b>\$140,000</b></p>	<p><b>Commercial</b></p> <p><b>세탁소</b></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b>\$160,000</b></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 문재인-안철수, 당 강령서 5·18 삭제 놓고 또 설전

### 文 "비판하니 입장 바꾼거냐" vs 安 "아니다. 흑색선전"

(서울=뉴스1) 박상휘, 서미선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본선레이스에서 양강체제를 구축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토론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 강령에서 안 후보가 5·18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는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정책검증 시간에 5·18 삭제에 대한 상황 변화가 없

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묻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당시 실무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들이 나온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 강령을 보면 모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철회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안 후보는 "잘못 알려진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았다.

4차산업혁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놓고도 입장이 충돌했다.

안 후보는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드는 일을 하면 민간 기업에서 창의력 발휘

해 발전시킬 수 있다"며 작은 정부론을 폈다.

반면, 문 후보는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인프라 조성을 정부 주도나 민간 주도나 하는 것은 의미없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큰 정부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뛰어든 데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답변이 오갔다.

안 후보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결과 위주의 감사를 바꿔야 한다"며 "과정에서 문제 없고 성실하다면 결과에서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고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려면 연구기관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제도가 달

라져야 한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주로 평가하는데 평가부터 연구자들 주도로 이뤄지도록 바꿔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견지했다.

sanghwi@news1.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문재인 44.8%, 안철수 36.5%...양자대결 文 49.0%, 安 41.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44.8%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7년 4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상승, 15주째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의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36.5%),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8.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2.8%),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1.7%) 순이었다.

문 후보는 충청과 경기, 인천, 호남권과 20대와 50대,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상승

했지만 60대 이상층,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하락했다.

안 후보는 5주째 상승세를 기록하며 30%대 중반을 넘어섰으며 TK(대구·경북)와 50대 이상층, 보수층에 선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TK, 수도권, 호남, 50대 이상층과 20대, 보수층에서 결집현상이 이뤄졌지만 충청권과 30~40대, 중도층에선 이탈 현상도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 심야사퇴 논란으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으며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0.8%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 후보의 3자 가상대결에선 문 후보가 47.0%로 가장 앞섰으며 안철수 후보는 37.2%, 홍준표 후보는 8.8%였다. '없음·잘 모름'은 7.0%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와 국민의

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를 가정한 문·안 후보의 양자 가상대결에선 문 후보 49.0%, 안 후보 41.1%, '없음·잘 모름'은 9.9%였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가상대결에선 문 후보 56.3%, 홍 후보 22.7%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8%, 국민의당 26.5%, 자유한국당 9.0%, 정의당 5.1%, 바른정당 3.7%였으며 무당층은 8.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8%), 무선(72%)·유선(10%) 자동 응답 혼용 방식과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9.8%(1만5518명 통화 시도, 최종 1,525명 응답 완료)다.

goodday@news1.kr

##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 연 3만弗 소득"...의혹 정면돌파

### 손금주 "차량 1대도 소유...후보자 딸까지 공격" 딸 미국 국적 보유? "1989년 서울대병원서 출생"

(서울=뉴스1) 박선미,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이 11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딸(설희씨)의 재산이 1억1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안 후보 딸 재산 공개 거부 의혹 제기에 재산을 전면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네거티브를 이용한 집중 공격이 안 후보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 대응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손금주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특정 세력은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안 후보를 흠집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후보와 후보 배우자를 넘어 후보의 딸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 후보 딸 재산 관련 의혹제기에 대해 "후보 딸의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1200만원"이라며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시가 2만달러 안팎) 1대가 있

다"고 공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딸은) 스탠퍼드대 조교로 일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 소득이 있다"며 "그후 매년 3만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딸의 재산은 부모와 조부모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이고 자신의 소득(연 3000만~4000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참고로 부(안 후보)의 학비지원 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했다.

이외에도 손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 딸에 제기된 미국 국적 보유 의혹에 대해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주권 신청 사실도 없다"고 했다.

gsm@news1.kr

## '장미대선 풍향계' 4·12 재보선에 42만 참여...투표율 28.6%

### '김재원 당선' 상주·군위·의성·청송 53.9%로 최대 기초단체장 35.4%, 광역의원 23.4%, 기초의원 21.3% 순

(서울=뉴스1) 박선미, 이원준 기자 = 장미 대선 풍향계로 여겨진 4·12 재보궐선거에 총 42만5426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2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1곳(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경기 하남, 포천, 충북 괴산),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4·12 재보선 투표율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보선에는 전체 유권자 148만8367명 중 42만54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각 선거별로는 국회의원 선거 53.9%, 기초단체장 선거 35.4%, 광역의원 선거 23.4%, 기초의원 선거 21.3%였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18만2858명의 유권자 가운데 9만8488명(53.9%)이 투표, 30개 선거구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대선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속에 치러진 재보

선이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단체장 3곳 투표율의 경우 최종적으로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62.4%, 포천시장 보궐선거 35.3%, 하남시장 보궐선거 30.1% 순이었다.

한편 이날 재보선에서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는 등 한국당이 30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승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남시장을 포함해 7명의 당선인을, 국민의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만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외에 바른정당 2명, 무소속 3명이 각각 당선됐다.

wonjun44@news1.kr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꿈: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회...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tvN, O'live,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법원노조 "사법개혁 재갈 물리려는 대법원장 퇴진하라"

"구시대의 정치공작...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한법학교수회 · 민변 · 참여연대 등도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오는 25일 사법개혁을 주제로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행사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공무원들이 사법개혁을 막으려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공무원 30여명은 8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양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사퇴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환 대법관)는 (법원 내 대표 학술단체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A 판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상 이례적인 (인

사) 취소발령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법관의 의사 존중'이라고 변명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구성을 획일적으로 바꾸어 권력남용 방지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구시대의 정치공작이나 있을 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판사는 각자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행정직제상 상관이 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자발적인 사법개혁을 원하는 일선 소장판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이와 관련해 전날 법원행정처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 9일까지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민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A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인권법연구회 해산을 요구했는지,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일선 법원으로 재인사가 났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을 무기로 법원의 문제점을 고쳐보려는 법관들의 정당한 노력을 억압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양 대법원장의 사과를 포함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 등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인 법원의 인사제도 개혁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방식의 답변을 받았다.

이 결과는 오는 25일 '국제수준의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에서 A 판사에게 학술대회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가 돌연 취소됐다.

A 판사의 측근들은 학술대회 문제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A 판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이동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 임종헌 차장 사의표명에도 법관들의 불신 확산일로...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부 내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등 빨빠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일련의 대응이 사법부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기보다 결국 사건 무마를 위한 임시처방에 그칠 것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법관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오는 25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학술대회에서 출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설문조사 내용의 외부 공표를 막으려고 시도하면서 사달이 났다.

다수의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학술발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통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전국 모든 판사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법원과 행정처의 권력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대법원장이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 자체가 법관 인사제도 개혁 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관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이야 법원 내부에서 언제든 다뤄질 수 있는 주제인데도 법원행정처가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축소 지시하고 판사의 인사를 번복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보좌기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로서는 전국 3000여명 법관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쪼개려고 시도하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행정처는 공보판사 등을 동원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난 17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관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 직은 사실상 '떨어 놓은 당상'이다. 그럼에도 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논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법복을 벗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차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대법원도 해당 사안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보여 왔던 기존의 대응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일선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사실상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판절차에 개입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

을 내놓았음에도 끝까지 대법관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평판사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세고 사법파동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문제의 당사자가 사표를 내겠다고 무마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임 차장이 사의표명으로 막아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양 대법원장이 해당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임 차장이 독단적으로 행사 축소를 지시했을 가능성보다 어떤 형태로든 양 대법원장이 개입했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임 차장의 사의표명이 '꼬리자르기'로 해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잘못으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자 돌연 임 차장이 법복을 벗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와 다를 바 하나 없는 모양새"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단을 운용하기로 하고, 조사위원장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

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사법부 또는 사법부 구성원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면 예정된 수순처럼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꾸리고는 했다. 일단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전형적인 사법부의 대응 방식이었던 셈이다. 법관들의 잇단 성추문 사건과 뇌물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과는 늘 용두사미 식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법관은 "현재 대법원으로서 다른 전직 대법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이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라면서 "그런 이인복 대법관도 판사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꼬집었다.

jurist@news1.kr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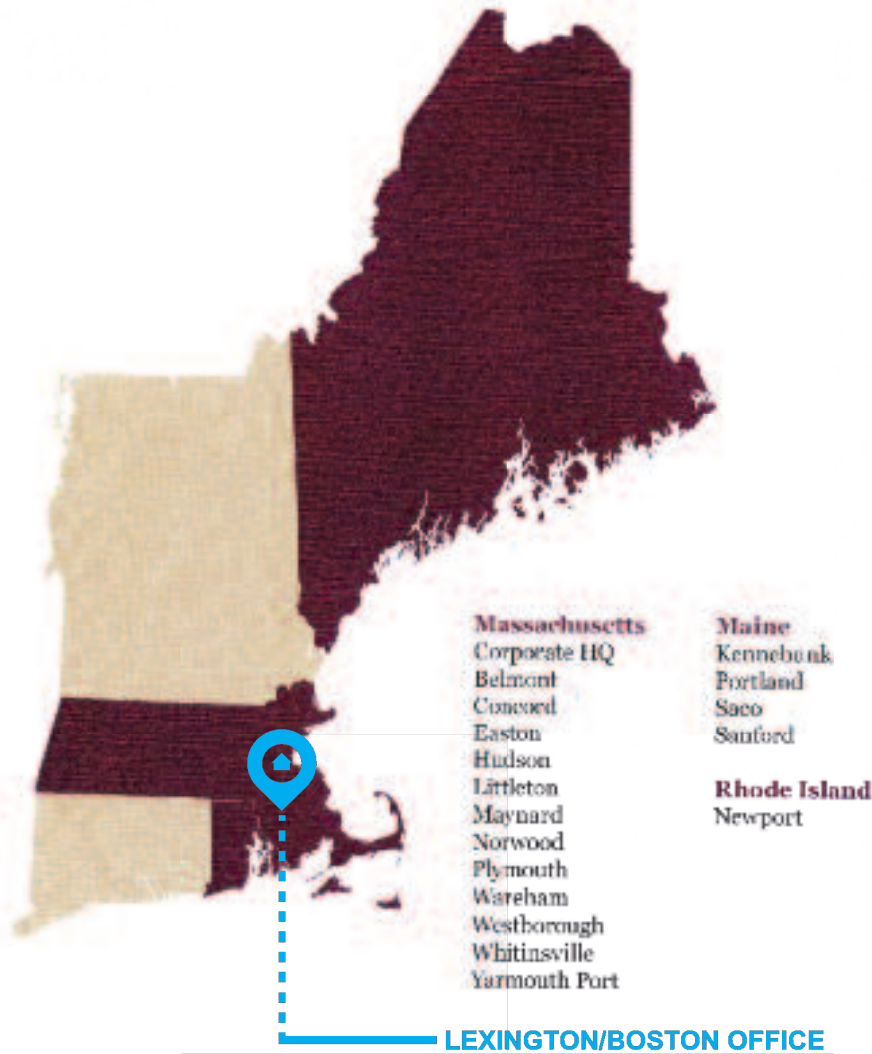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I Magurn**  
508.733.2949



##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드래프트 전 패트리어츠 포지션 점검 - (1)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로스터를 보충하기 위해 이번 오프 시즌에 그 어느 팀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패트리어츠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2017 NFL 드래프트를 앞둔 시점에서 패트리어츠의 각 포지션별로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자. 약점으로 지적되는 포지션은 드래프트에서 보충이 될 수도 있다.

### 쿼터백: 강점

쿼터백은 패트리어츠 로스터에서 가장 강력한 포지션으로 꼽힌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은 NFL 전체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강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패트리어츠에는 탐 브래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즌이 시작할 때 40세인 브래디는 나이만 놓고 보면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5번이나 차지한 베테랑 쿼터백 브래디는 여전히 엘리트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에 페이튼 매닝의 전례처럼 노화에 의해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브래디는 이번 시즌에도 리그 최고 수준의 쿼터백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패트리어츠는 쿼터백에 대한 보험도 확실하다. 브래디의 백업으

로 지미 거라폴로와 자코비 브리셋이 있다. 이미 패트리어츠는 브래디가 없이 백업 쿼터백만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즌에 보여주었다.

### 러닝백: 약점

패트리어츠에 수준급 러닝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로스터에 있는 제임스 화이트와 디온 루이스는 방향 전환이 빠르고 리시빙이 가능해 전천후로 기용이 가능하다.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 동안 뱅갈스에서 렉스 버크헤드도 영입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에는 퍼스트나 세컨 다운에서 러닝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주전 러닝백이 현재는 없다. 지난 시즌에 르게렛 블런트가 했던 역할이지만, 블런트는 프리 에이전시 상태다.

블런트와의 재계약 가능성도 있고, 애드리안 피터슨 같은 베테랑 러닝백과의 계약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패트리어츠 로스터에는 파워 러닝백이 없는 상태다. 트레이드나 프리 에이전시, 혹은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를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포지션이다.

### 타이트엔드: 강점

패트리어츠의 주전 타이트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등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러나 오프 시즌 중 프로 레슬링에 출연까지 한 그롱코스키는 이미 몸 상태가 완전



트레이드로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브랜던 쿡스는 패트리어츠의 공격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롱코스키가 2017 시즌에 100% 건강을 회복한다면 여전히 리그 최고 타이트엔드다운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롱코스키의 존재만으로도 패트리어츠의 타이트엔드 포지션은 리그 최고로 꼽힐 수 있다.

그리고 패트리어츠 타이트엔드는 그롱코스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이번 오프 시즌에 리시빙이 가능한 타이트엔드 드웨인 앨런을 영

입했다. 선수들의 실력과 선수층의 깊이 면에서 타이틀엔드는 패트리어츠의 강점으로 꼽힌다.

### 와이드 리시버: 강점

2017 시즌을 앞둔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 보인다.

줄리언 에들먼은 NFL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리시버로 성장해 브래디의 패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선수다. 크

리스 호건은 장거리 패스에 대한 리시빙으로 상대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대니 아멘돌라와 말콤 미첼까지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에 브랜던 쿡스까지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쿡스는 경기의 흐름까지 뒤집을 수 있는 대형 리시버로, 패트리어츠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의 랜디 모스와 견줄 수 있는 선수다.

jsi@bostonkorea.com

## 오승환, 4경기만에 첫 무실점...추신수는 안타 추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개막 이후 4경기만에 처음 무실점 경기를 했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안타 한 개를 추가했다.

오승환은 12일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6-1로 앞선 9회말에 나와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모두 점수를 내주며 불안함을 노출했던 오승환은 견재를 과시하며 평균자책점을 12.27에서 9.64로 끌어 내렸다. 올 시즌 처음으로 이를 연속 피칭에도 안정감을 보였다.

오승환은 6-1로 앞선 9회말 브렛 세실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 전에 8회 나왔던 트레버 로젠탈이 1/3이닝 3피안타 1실점(1자책점)으로 부진했던 상황에서 등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8회 로젠탈, 맷 보우먼, 브렛 시슬이 각각 아웃카운트 1개씩을 책임졌다.

오승환은 9회 첫 타자 다니엘 페피에게 2볼 1스트라이크로 불리한 상황에서 빠른 직구를 던져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하지만 곧바로 라이언 짐머맨에게 높은 슬라이더를 던지다 좌중월 2루타를 허용했다.

경험이 많은 오승환은 침착한 피칭을 이어갔다. 1사 2루의 위기에서 제이슨 위스에게 공격적인 피칭으로 2스트라이크를 잡아냈고,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던져 우익수 플라이를 잡아냈다.

이어 오승환은 맷 워터스를 좌익수 뜯공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쳤다. 점수 차이가 커서 세이브로 기록되진 않았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6-1로 워싱턴을 꺾고 3승(6패)째를 올렸다. 워싱턴은 5승4패가 됐다.

추신수는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전날 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지만 시즌 타율은 0.231(26타수 6안타)로 소폭 하락했다.

추신수는 1회초 무사 1루의 찬스에서 1루수 방면 땅볼을 쳐 병살타로 처리됐다. 3회초에는 2사 주자없는 가운데 타석에 들어섰지만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추신수의 유일한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5회초 텍사스가 대거 3점을 뽑으며 경기를 뒤집었고, 1사 1루에서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섰다.

좌완 블레이크 파커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추신수는 7구째 공을 공략했다. 빗맞은 타구였지만 야수들이 없는 쪽으로 향한 덕에 안타가 됐다. 1루주자는 3루로 향했다.

추신수는 노마 마자라의 투수 앞 땅볼 때 2루까지 밟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7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9회초에는 유격수 땅볼로 아웃

되며 경기를 마쳤다.

한편 텍사스는 8-3으로 승리했다. 2-3으로 뒤지던 5회초 3점을 뽑아 경기를 뒤집었고, 7회 1점, 9회 2점을 더 보탤다. 전날 대역전패를 초래했던 불펜진도 이날 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텍사스는 3승5패를 마크했고, 에인절스는 4연승을 마감하면서 6승3패가 됐다.

starburyny@news1.kr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승환.



2017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및**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일시: 2017년 5월6일(토) 오후 2시  
 장소: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접수기간: 2017.4.10~4.30(선착순)  
 참가대상: 통일골든벨(초.중.고등학생)  
 통안비(초중고.대학(원)생,일반)

보스톤지역예선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Everett Parish of Convent Church

**성삼일 미사 및 전례 안내**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치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781.266.7245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Language Bridge, LLC**

Language Bridge, LLC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gency, is currently looking for qualified, bilingual and bicultural native speakers who are willing to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on an as-needed basis in Massachusetts, Connecticut and New Hampshire.

We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legal and medical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community-based agencies, schools, social services, and a variety of the institutions.

If you are interested to apply for the position at our company, visit our website(www.lbridge.com) and register as a new interpreter. The hiring manager from Language Bridge, LLC will contact you within 48 hou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e work flexible hours and you will be able to pick your own assignments. Reliable transportation and internet access are required.

P.O. Box 60503, Longmeadow MA 0116  
Phone: (413) 754-3488 Fax: (413) 567-1295  
Email: info@lbridge.com  
www.LBridge.com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주방헬퍼,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함  
T. 781-863-2800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Turn Key! Japanese Sushi Restaurant Business for Sale!**

Price drastically reduced by more than 50%! It was \$176,000, now only \$87,000!  
Great high traffic (cars and foot) busy main road in major city in Boston.  
Write detail about what you do now, no seller financing available.  
Serious inquiries only, if interested write to: mikasarealty@yahoo.com for more detail.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돌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781-854-8880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머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스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톡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주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경성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영차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스	617-87

# 척추 치료, 안정적인 비수술적 치료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 "신경 가지 치료술, 비수술적 척추치료요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주사요법"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척추 관절 치료의 오랜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휴람 네트워크병원 '종합병원 세란병원' 척추센터의 도움을 받아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 척추 치료, 안정적인 비수술부터 차근차근 시행 : 현대인들에게 척추질환은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요통 등의 증상에 '나도 혹시 디스크?'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경우 척추의 문제보다는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통증일 뿐이다. 때문에 대부분 이런 통증은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는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이런 증상은 그저 단순한 증상으로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요통은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요통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척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서 척추뼈 역시 압력을 받아 휘어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역시 이런 퇴행성변화로 인해 디스크가 튀어나와 척추신경을 누르면서 요통은 물론 허반신 전체가 저리고 심할 경우 마비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고령화와 자세, 운동부족 등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척추질환이 생기고 있다.



많은 척추전문의들은 요통 등 증상은 직업보행을 하는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증상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런 통증은 운동이나 자세교정 등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란병원 척추센터 오명수 진료부원장은 "다만, 계속 되는 요통이나 다리 절임 증상, 하지 마비 등 실제로 척추신경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태에 이르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때 역시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된다. 그러나 이때 한가지 꼭 유의해야 하는 것이 '어떤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냐'이다. 비수술적 치료 역시 수술만큼이나 신

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진료부원장은 "현재 시행중인 비수술적 척추치료법 중 대표적이며 안정적이고 간단한 주사요법은 선택적 신경 가지 치료술"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시간 방사선장치를 보면서 신경이 압박된 부위에 약물을 넣는 주사치료가 3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시술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오 진료부원장은 또 "척추질환이 진행되면 디스크, 인대 및 뼈 등의 척추 구조물들이 주요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신경주변에 염증물질이 나오고, 신경의 압박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염증물질이 많이 분포하는 신경이 눌린 바로 그곳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사해 주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신경 가지 치료술"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는 비교적 초기 증상을 가진 환자 뿐 아니라 수술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령 환자들에게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 척추 비수술 치료? 저렴하고 안정적인 치료가 먼저다 :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리 근력 약화와 생활 속 잘못된 자세는 만성요통뿐 아니라 디스크병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척추질환

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론 이런 척추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잘못된 자세교정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처음엔 그저 미비한 통증이었다고 해도 이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엔 심각한 척추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척추질환이 다양해지고 실제 척추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치료법 역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초·중기 척추질환 환자의 경우 이런 비수술적 시술과 물리치료, 꾸준한 운동 등의 노력을 통해 통증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요즘은 비수술적 척추치료가 이른바 대세가 되면서 각종 비수술적 시술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비수술 치료도 치료효과나 방법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비수술적 치료 중 일부는 의학계에서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많은 만큼 더욱 경계해야 한다.

특히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시술보다는 학계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안정된 시술인지, 비용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 \$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 "이런 조합은 없었다" '맨투맨' 6인 6색 포스터

(서울=뉴스1스타) 손현석 기자 = JTBC 새 금토드라마 '맨투맨' (연출 이창민, 극본 김원석)의 6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12일 공개된 포스터에는 '수상한 합동작전이 시작된다' 라는 문구 아래로 각기 다른 사연으로 만난 여섯 인물의 모습이 담겨있다.

고스트 요원 김철우(박해진) 옆에 여고 시절부터 한류스타 여운광(박성웅)의 팬클럽을 이끈 열혈팬 출신 매니저 차도하(김민정)가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 또 당당한 위엄을 과시하고 있는 여운광 역의 박성웅은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친다.

송산그룹 재벌 3세 모승재를 맡은 연정훈은 기존에 보여준 역할들과는 또 다른 강렬한 악역 캐릭터를 예고하고 있다. 촉망 받은 여배우에서 재벌 3세 아내로 신분 상승한 송미

은 역의 채정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카리스마를 뽐내 시선을 끈다.

국정원 출신 검사 이동현으로 분할 정만식은 김철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군으로 극의 주요한 축을 이끌게 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이다.

'맨투맨' 제작진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각각의 캐릭터가 만나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예측불가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맨투맨'은 초특급 한류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다재다능하고 미스터리한 고스트 요원과 그를 둘러싼 숨은 맨(Man)들의 활약을 그리며, JTBC 금토드라마 '힘센여자도 봉숭아' 후속으로 오는 21일 처음 방송된다.

spinoff@news1.kr



##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본지 인터뷰가 의미하는 것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미국 빌보드지가 방탄소년단의 미국 내 인기와 박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와의 인터뷰를 본지 주요 기사로 실었다.

빌보드는 15일 자 129-9호와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의식 있는 K팝으로 장르를 넘어설 것인가?'(Can Conscious K-Pop Cross Over)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방시혁 대표는 미국 투어를 비롯한 방탄소년단의 성과에 대해 "기대를 훨씬 넘는 반응에 너무나 기쁘며 동시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랐다. 더 좋은 음악과 프로덕션으로 팬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이 세계의 팬들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게 하는가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영어로 된 노래를 발표하는 방식의 미국 시장 진출보다는 K팝의 근본 원칙을 지키되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늘려 K팝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만이 K팝의 메인스트림 진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아레나급의 콘서트를 5번이나 매진시키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방탄소년단과의 인터뷰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뤘다.

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사회, 정치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방탄소년단이 되고,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그 문제들에 관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큰 힘을 가



지게 될 것"이라고 음악적 주제 의식에 대해 말했다.

또 방탄소년단은 "멤버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목표를 꿈꾸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 우리의 목표는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 그것을 팬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대표의 빌보드 본지 인터뷰는 K팝 가수로서 몹시 이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음악 전문 홍보회사 EIPR의 앨런 스피스 부사장은 "보통 K팝은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빌보드에서 온라인 기사 위주로 다룬다"며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아레나급 투어를 여러 차례 매진시켰으며 미국 음악 시장에서 K팝을 넘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이번 기사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ppbn@news1.kr

##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설경구 "임시완과 '케미' 위해 노력"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설경구가 범죄액션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변성현 감독)에서 그의 연기 인생을 지배할 과격 변신을 예고했다.

설경구는 11일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호흡을 맞춘 임시완에 대해 "처음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인물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했다. 임시완이 맡은 현수 역할과 케미스트리를 위해 서로 엄청 노력했다"라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혔다.

상대 배우 임시완 역시 "실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 같은 존재였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편안한 느낌에 대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베테랑 설경구와 함께한 소감을 전했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범죄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재호와 세상 무서운 것 없는 패기 넘치는 신참 현수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액션 드라마. '실미도'로 대한민국 최초 천만 배우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설경구는 어느덧 2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지닌 베테랑 국민 배우다.

설경구는 그동안 액션, 드라마, 코미디, 재난 블록버스터, 로맨스 등 모든 장르를 총망라하며

관록의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여왔다. 이번엔 그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통해 조직의 실세 역할을 맡아 놀라운 연기 변신으로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을 전망이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불한당이 된 남자 재호로 분한 설경구는 더블 버튼 수트에 포마드를 바른 스타일리쉬한 비주얼로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섹시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이러한 과격 변신을 위해 설경구는 직접 분장팀에 헤어라인, 눈썹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조직의 실세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잔인한 승부 근성을 지닌 재호를 통해 설경구는 남성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켜 카리스마의 끝을 보여준다. 또한, 재호의 눈에 띄어 함께 조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현수 역을 맡은 임시완과의 신선한 케미스트리까지 더해져 생애 첫 브로맨스까지 예고 중이다.

한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5월 개봉한다.

eujenej@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7년 4월 3일 ~ 2017년 4월 9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7.4%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4.5%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1.4%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7.4%
5	KBS1	KBS9시뉴스	17.2%
6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5.7%
7	SBS	월화드라마(꽃속말)	14.4%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2.7%
9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12.5%
10	KBS2	해피선데이	11.8%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SBS	월화드라마(꽃속말)
6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7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8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9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10	SBS	아침연속극(아임소리강남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밤편지	아이유
02	REALLY REALLY	WINNER
03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04	KNOCK KNOCK	TWICE
05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06	사랑이 잘 (With 오혁)	아이유
07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08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9	Fine	태연
10	Make Me Love You	태연

## 숫자 퍼즐 (Sudoku)

			1	2			6
	1			9	5		7
2			4			5	1
	3	9					
		8		2		4	
						3	1
9		7			1		2
	2		8	3			6
6			2		7		

4월 16일 - 4월 22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b></p> <p>●운수: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취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예상하지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되겠습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애정: 잘 보이거나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1일 길일. 16, 22일 주의.</p>	 <p><b>소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b></p> <p>●운수:내가 살아온 세계와 자식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부모 자식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금전: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더 생각해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정: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농칠까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6, 19일 길일. 17, 18일 주의.</p>	 <p><b>범띠   최선의 결과가</b></p> <p>●운수: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맘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골 고객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2일 길일. 16, 18일 주의.</p>
 <p><b>토끼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b></p> <p>●운수: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으로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결혼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용띠   스스로 해결하려고</b></p> <p>●운수:처음부터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금전:피해를 막으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정: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뱀띠   지레짐작하지 말고</b></p> <p>●운수: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말띠   미운 정 고운정이</b></p> <p>●운수:벼르고 벼르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자신이 세워둔 계획이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부딪치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애정: 자주 만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 정 고운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양띠   씨앗을 심어야</b></p> <p>●운수: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전: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애정:한쪽은 자꾸 감추려하고 다른 한쪽은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원숭이띠   이제야 빛을 발하게</b></p> <p>●운수: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애정: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통할 수 있으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내 뜻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닭띠   뜻밖의 행운이</b></p> <p>●운수: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전: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잘 어울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개띠   체계를 세워서</b></p> <p>●운수: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금전: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체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애정: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관참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2일 길일. 18, 20일 주의.</p>	 <p><b>돼지띠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b></p> <p>●운수: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p>

# 김영애 별세 그후, 고개드는 이영돈 PD 비난여론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고(故) 김영애가 채장암 재발로 세상을 떠나 연예계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과거 이영돈 PD와의 일로 크게 마음 고생했던 이야기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김영애는 지난 2001년 황토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으로 누적 매출 1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번성을 누렸다. 당시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4년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한 바 있다.



영애는 이혼까지 겪으면서 마음 고생을 앓았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영애의 황토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추락한 황토팩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했다. 김영애는 이영돈 PD 측을 상대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이영돈 PD 측이 김영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이영돈 PD 측은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영돈 PD 측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영애가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영돈 PD와의 과거 일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 이영돈 PD의 무책임한 보도에 따른 비난 여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는 것. 고인은 연합뉴스와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 은 어떤 미운 사람도 가슴에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한 만큼, 과거 일은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luemchang@news1.kr



## '무한도전' 박보검, 댄스 신고식에 봄슬레이까지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박보검과 '무한도전'이 함께 한다.

오는 15일 MBC '무한도전'에서는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2018 평창' 편이 방송된다.

멤버들은 게스트 박보검과 함께 빙판이 만개한 완연한 봄에 아직 끝나지 않은 눈꽃축제를 펼친다. 박보검은 그동안 여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던 예능감을 발휘했다. 특히 댄스 신고식에서 숨겨왔던 춤 실력을 공개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들을 이용해 팀 대결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지난 2009년 봄슬레이 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아이스하키에서는 멤버들 모두가 거친 남자의 매력을 발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박보검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실제 선수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ppbn@news1.kr

## '라스' 송민호, 정형돈 도플갱어 사진에 "당시 90kg육박"

(서울=뉴스스타) 윤정미 기자 = 위너의 송민호가 정형돈 도플갱어 사진과 관련,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던 과거를 털어냈다.

12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송민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들은 송민호의 과거사진을 대방

출했다. 정형돈 도플갱어 사진이 공개되자 출연자들은 "약간 흥인규 느낌이 난다." "착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민호는 "당시 90킬로그램까지 찼다. 방학시즌때 단기간에 20킬로그램을 뺐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블라비 피오와 절친인데 그와 합숙하면서 단식으로 감량했다.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열탕에 찜질하러 갔다가 휘청하고 쓰러진 피오를 구출해서 평상에 눕혀놓고 저도 눕기도 했다" 며 다이어트 후유증에 대해 언급했다. galaxy98@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믿고 보는 손현주, '보통사람'이 기대되는 이유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보통사람'의 배우 손현주가 1980년대 강력계 형사이자 가장 보통의 아버지 성진 역으로 분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길 예정이다.

자타공인 명품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흥행 보증 수표 손현주는 2년 만에 주연으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바로 오는 3월 개봉을 앞둔 '보통사람'을 통해 관객 앞에 나서는 것. '보통사람'은 1980년대, 보통의 삶을 살아가던 강력계 형사 성진이 나라가 주목하는 연쇄 살인사건에 휘말리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다.

우연히 잡은 용의자가 연쇄 살인범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성진에게 안기부 실장 규남이 뜻밖의 제안을 해오고 성진은 가족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 선택은 되레 성진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성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화려한 필모그래피 가운데에서도 특히 스릴러 장르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해왔던 손현주는 '보통사람'을 통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폭넓은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유의 실제 같은 말투와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성진이 처한 상황과 선택, 결정에 공감을 더하며 극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형사로서의 액션 연기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내 손현주가 선보일 '보통사람'이 어떤 인물일지 더욱 기대를 모은다.

aluem\_chang@news1.kr

### 티보플레이 4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빛나라 은수       |
| 2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3  | KBS | 다시 첫사랑       |
| 4  | SBS | 우리 갑순이       |
| 5  | SBS | 귓속말          |
| 6  | MBC |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
| 7  | MBC |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
| 8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9  | MBC | 언제나 봄날       |
| 10 | SBS | 아임쏘리 강남구     |

### 티보플레이 4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프로듀스 101 시즌2 |
| 2 | KBS    | 추리의 여왕       |
| 3 | CJ E&M | 시카고 타자기      |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 1 | 보통사람 | 손현주, 장희 |
|---|------|---------|

## '발칙한 동거 김구라' "한은정과 러브라인? 우정으로 접근"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방송인 김구라가 배우 한은정과 러브라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구라는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한은정도 혼자 산다. 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판타지가 있다. 제작진이 일부러 대놓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생겼다. 약간의 거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구라는 "나는 중견 방송인, 한은정은 중견 배우이자 매력적인 싱글로서 임하는 것"이라며 "우린 우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석에서는 말을 놓지 않지만 친한 사이다. 아주 좋은 후배를 얻어서 기분 좋다"고 털어놨다. 이어 "한은정씨의 도도하고 차가울 것 같은데 털털하다"며 "성격이 좋더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발칙한 동거'는 전혀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진 스타들이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빈 방을 다른 스타들에게 세를 주며 벌어지는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가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가탄신일

봉축법회: 불기 2561년 (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재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자연스레움이 아름다운 도량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목소리와 걸음걸이...

글쎄, 나는 까탈스런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한가지 재미있는 일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며 배우려 애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어디에서 왔을지 모를 나의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직관(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게다. 그렇지만 처음이 아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상대방 전화 목소리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은 어찌랴.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로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의 목소리'를 빨리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과 주관적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어느 모임에서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정도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각양각색의 얼굴이나 모양만큼이나 각각 사람의 목소리의 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를 나 자신의 통계적인 생각과 그를 밀받침하는 연구분석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이

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끔은 그 어설픈 통계 속 수치는 빛나가고 언박자가 날 때도 있지만, 배움의 길은 끝이 없음을 또 깨닫는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神)이 선물로 주신 다른 사람보다 자신만의 장점(달란트)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만 그것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또한 인생에서 그 달란트를 빨리 찾아 자신 개인에게도 이롭고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확장하며 산다면 최고의 삶일 것이다. 하늘이 주신 참으로 귀한 보석 같은 선물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해 기쁨과 행복이 절감되고 생각해 보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던가. 이처럼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다른 사람과의 나눔이 재능기부가 되는 것이다.

나의 장점으로 나 자신뿐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과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로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삶이 또 있을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 물론, 어

떤 종교의 성직자들을 특정 지어 나열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일상을 꾸려가며 평범함 속에서의 숭구하는 힘(에너지)은 전제적으로는 그 과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도 힘을 얻고 나의 삶 속에 에너지의 충전을 받는 것이다.

이렇듯 목소리를 들어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은 파악하듯이 걸음걸이를 살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또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난 기질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특별히 어떤 종교를 통해 감동을 받아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부모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아서 갖고 태어난 기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표현되고 표출되는 반응 정도는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성질(기질)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지금 사회적 동물이기에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다.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감추는 것의 빠른 속도에 더 빠르고 집요한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그래서 여유가 없이 사는 까닭이다. 무엇인가 하지 않

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인간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소외당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이 속도 빠른 현대과학과 과학기술문명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습득은 빨라졌겠으나 그로 인해 공허함과 허탈함 또한 비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문명과 더불어 현대인간문명도 생각해야 할 때다.

"현대 사회는 개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유용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간을 평등하게 하려고 시도한 나머지 개개의 특성을 억압해 버렸지만, 이 특성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의 성격이 꼭 알맞을 때만 행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형도 한가지 규격에 넣을 것이 아니라, 다양해야 할 것이며 교육 방법과 생활 습관에 따라 이 타고난 개성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각 개인은 자기의 적재적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4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시 신라의 관등과 골품별 승진 상한선, 그리고 갈문왕제도를 살펴본다.

먼저 당시 신라의 관등과 골품별 승진 상한선을 본다. 신라는 17등급의 관직이 있었다. 1등급 이별찬 부터 17등급의 조위는 왕성에서 재직하는 경위京位직이다. 자세히 보면 1등급 이별찬, 2등급 이찬, 3등급 잡찬, 4등급 파진찬, 5등급 대야찬, 6등급 야찬, 7등급 일갈찬, 8등급 사찬, 9등급 급찬, 10등급 대나마, 11등급 나마, 12등급 대사, 13등급 사지, 14등급 길사, 15등급 대오, 16등급 소오, 그리고 17등급 조위이다. 그리고 외위外位의 관직으로는 7등급 약간, 8등급 술간, 9등급 고간, 10등급 귀관, 11등급 선간, 12등급 상간, 13등급 간, 14등급 일별, 15등급 일척, 16등급 괴일, 17등급 야척으로 나누어져 있다(이 외위는 통일신라 이후인 674년, 문무왕 14년에 지방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면서 자연히 폐지되었다). 관복의 색깔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자색(질은 남색의 자주색)이고, 7등급에서 9등급은 비색(붉은색)이며, 10등급과 11등급은 청색이고, 12등급에서 17등급은 황색이었다. 그리고 골품별 승진 상한선은 진골이어야만 1등급까지 진급이 가능하고, 6두품은 6등급, 5두품은 10등급, 4두품은 12등급 까지만 승진이 가능하였다. 그외에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의 취임 가능 상한 관직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 가령 중앙관직의 최고위급인 영수는 1등급에서 5등급에게만 취임이 가능하였고, 지방관직의 최고위인 도독은 2등급에서 8등급에게만 주어졌다.

다음에는 갈문왕제도를 살펴본다. 갈문왕葛文王은 신라 왕실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족과 근친 귀족들에게 추봉하였던 왕명王名이다. 그 추봉 범위는 왕의 아버지, 왕의 외할아버지, 왕의 동생, 여왕의 남편, 왕비의 아버지, 왕의 숙부, 심지어 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형성한 귀족 등으로 사회적인 특권을 부여받았다. 갈문왕제도는 일찍부터 존재하였으며 초기 이사금시대에는 갈문이라고 부르다가 마립간 시대에 와서 중국식의 표현을 빌어 갈문왕으로 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왕의 형제들에게 주어졌다. 갈문왕은 조선시대에 많이 추증된 3정승 6판서의 직위와는 달리 살아있을 때 추봉되었던 칭호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조분 이사금의 아버지 골정, 첨해 이사금의 아버지 세신, 지증왕의 아버지 습보, 진덕여왕의 아버지 국반 등이 왕의 생부로서 갈문왕에 추봉되었다(조선의 흥선대원군과 같다. 조선의 대원군 4명중에 생전의 대원군은 흥선대원군 밖에 없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사후에 아들이 왕이 되었기에 추증되었다. 덕흥대원군 -

14대왕 선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 - 16대왕 인조의 아버지, 전계대원군 - 25대왕 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 26대왕 고종의 아버지). 또한 왕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로서 갈문왕에 추봉된 사람은 일지, 허루, 마제, 지소례, 내음, 이철, 복승 등이다. 알천의 경우는 김춘추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알천의 조부가 갈문왕에 봉해졌다. 왕의 남편으로는 선덕여왕의 남편이 음갈문왕에 추봉되었다. 그외에도 진평왕의 동생이자 선덕여왕의 삼촌인 백반과 국반도 갈문왕으로 봉해진 기록이 있다. 그런데 세종의 경우는 갈문왕에 추봉된 기록은 없지만 전군殿君으로 봉해져 있었다. 진골로 이찬과 상대 등의 벼슬을 지내고 막강한 세력가였던 김태종(이사부)이 친아들 세종에게 배례를 해야만 했다는 화랑세기의 기록은 당시 세종전군이 진흥왕을 시축하면서 갈문왕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전군제도는 조선시대에 왕의 형제들에게 봉해지는 대군大君과 같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이어지는 김대문의 화랑세기, [태종공이 일찍이 일이 있어 사사로이 진흥왕을 찾아볼 때, 공이 시축했다. 태종공은 진흥제에게 먼저 절하고 공에게 다음으로 절했다. 공은 황망히 나아가 부축하며 감히 절을 받지 않았다. 제帝가 말하기를 “이 노인은 비록 중신重臣이기는 하나 나의 신하이다. ... (지위로) 너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공이 울며 말하기를 “아버지 ...입니다. 어찌 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덕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 라 했다.]

이 부분도 탈자가 적지않아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후의 문맥과 함께 보면 충분히 뜻을 알 수 있다. 진흥왕은 이부동복의 막내아우인 세종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시축하게 하였다. 위의 장면은 이사부(태종)가 진흥왕을 찾았을 때의 한 광경을 보여준다. 전군殿君 외에 세종의 정확한 관등이나 지위가 나오지 않아 궁금하지만 이찬과 상대등을 지낸 이사부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며 예를 갖추었다면 전군의 지위도 갈문왕에 버금감이 분명하다. 여기서 잠시 당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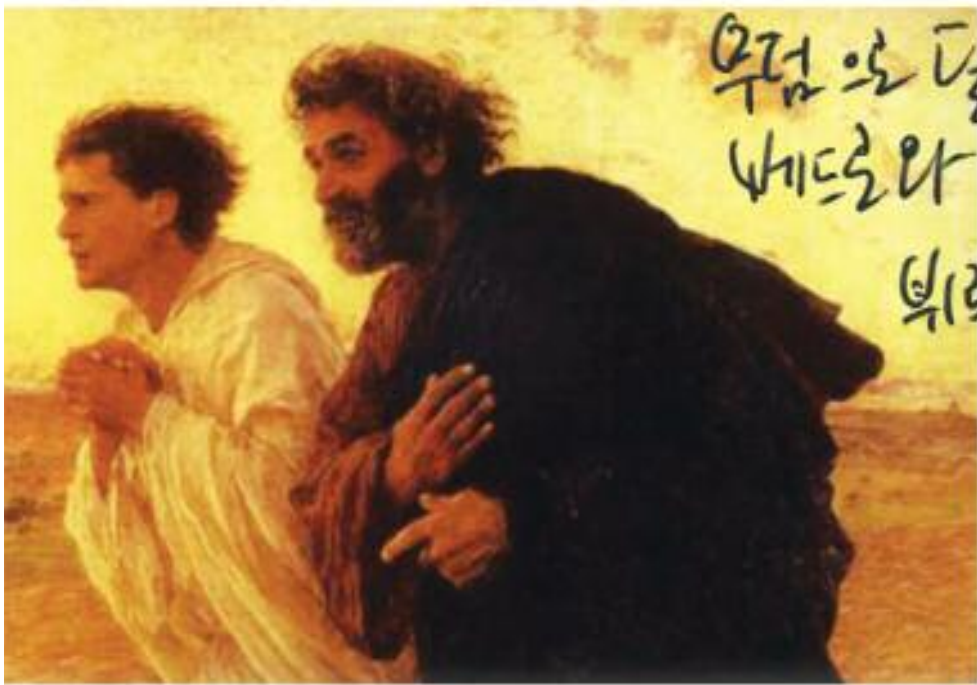


<p><b>2017 Hyundai Elantra SE</b></p> <p><i>This vehicle features:</i>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p> <p>FWD, Automatic, HQ11289</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69/mo.</td> <td>\$15,631</td> <td>0.9%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69/mo.	\$15,631	0.9% APR	<p><b>2016 Hyundai Elantra SE</b></p> <p><i>This vehicle features:</i>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p> <p>FWD, Manual, HQ11603</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89/mo.</td> <td>\$13,290</td> <td>0%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89/mo.	\$13,290	0% APR	<p><b>2016 Hyundai Accent GLS Sedan</b></p> <p><i>This vehicle features:</i>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p> <p>FWD, Automatic, HQ11525</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119/mo.</td> <td>\$12,798</td> <td>0%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119/mo.	\$12,798	0% APR
LEASE	PURCHASE	FINANCE																		
\$69/mo.	\$15,631	0.9% APR																		
LEASE	PURCHASE	FINANCE																		
\$89/mo.	\$13,290	0% APR																		
LEASE	PURCHASE	FINANCE																		
\$119/mo.	\$12,798	0% APR																		
<p><b>2017 Genesis G80 3.8</b></p> <p><i>This vehicle features:</i>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p> <p>AWD, Automatic, HQ11680</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419/mo.</td> <td>\$45,500</td> <td>1.9%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419/mo.	\$45,500	1.9% APR	<p><b>2017 Hyundai Santa Fe Sport</b></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629</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129/mo.</td> <td>\$23,527</td> <td>0.9%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23,527	0.9% APR	<p><b>2017 Hyundai Tucson SE</b></p> <p><i>This vehicle features:</i>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p> <p>FWD, Automatic, HQ11289</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175/mo.</td> <td>\$20,248</td> <td>0%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175/mo.	\$20,248	0% APR
LEASE	PURCHASE	FINANCE																		
\$419/mo.	\$45,500	1.9% APR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23,527	0.9% APR																		
LEASE	PURCHASE	FINANCE																		
\$175/mo.	\$20,248	0% APR																		
<p><b>2017 Hyundai Sonata SE</b></p> <p><i>This vehicle features:</i>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p> <p>FWD, Automatic, HQ11830</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129/mo.</td> <td>\$18,197</td> <td>0%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18,197	0% APR	<p><b>2017 Hyundai Santa Fe SE</b></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442</p>  <table border="1"> <tr> <td>LEASE</td> <td>PURCHASE</td> <td>FINANCE</td> </tr> <tr> <td>\$189/mo.</td> <td>\$29,003</td> <td>0% APR</td> </tr> </table>	LEASE	PURCHASE	FINANCE	\$189/mo.	\$29,003	0% APR	<p><b>한국인 딜러</b></p> <p><b>Earl Ko</b> <small>고을</small> Authorized Hyundai Dealer <b>617.755.6941</b></p>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18,197	0% APR																		
LEASE	PURCHASE	FINANCE																		
\$189/mo.	\$29,003	0% A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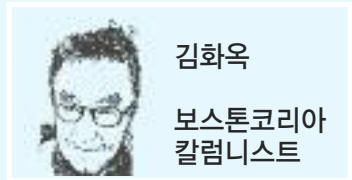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 한담객설閑談客說: 만만한 사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늘 줄문은 종교적이다. 묵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0여년전 어디선가에서 읽고 베껴놓은 글이었다. 제목도 그럴듯 하다. '만만한 사람'. 반가워 다시 더듬어 읽어 내려갔다. 몇구절만 여기 옮긴다.

'만약 내가 만만하고 야단치기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간의 실수와 실패 중 많은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들은 왜 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인지..... 선배에게 야단맞는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후배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비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능력이며 때때로 성과는 거기서 부터 갈

린다.'  
요사이 베드로에게 끌린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이다. 그는 아마 만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아니면 그가 선임先任이고 만형이었기에 그런가. 그는 자주 꾸중듣고 야단 맞는다. 미련하다고 욕먹고, 성질죽이라고 질책 받는다. 얻어 터진것도 여러번이다. 덕분인지 날마다 연단되어 갔다. 하지만 야단 맞을 적엔 그도 서러웠을 게다. 갈릴리 호숫가 뱃전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음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만만한 베드로는 이제 위대한 성자聖者의 맨 앞줄에 섰다. 한낱 가난한 어부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성聖베드로가 된 것이다.

성경에 나온다. 예수와 베드로와의 대화이다. 언제 읽어도 인간적이다. 대화체 형식으로 바

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 없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새성경, 요한복음 15:5~9절)

일단 혼나고 나서, 고집을 꺾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감겨 달란다. 후회도 빠르고, 욕심도 크다. 그의 후회는 정당하고, 욕심은 가히 종교적이다. 신심信心이 깊다 해야겠다. 아예 목욕시켜 달라지 않은게 다행이다. 예수님이 세신사洗身士 될뻔했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1)

1. 분명 어느 칼럼에서 배웠다. 출처를 찾을 수 없다. 글의 원저자에게 미안하다.

## 김화옥 칼럼니스트님께



한담객설을 늘 즐겨 읽어 보는 독자입니다.

그렇게 재치있게 또 그렇게 짧고 간단하게 쓰시면서 읽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크게 자극하시는 분으로 늘 존경하는 독자입니다.

특별히 금년 설날을 맞으며 쓰셨던 '떡 방앗간' 이야기를 읽고 아직까지 마음 아픈일이 있어 '운명의 떡 방앗간' 저의 이야기로 답글을 올려 드립니다.

6.25로 서울집을 떠나 진해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피난중 임시 작장으로 진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영어교사로 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 직장 근처에 독사골이라는 곳에 방을 빌리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 설날이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쌀을 깨끗이 씻어

머리에 이시고 어린 저는 막내동생의 손을 잡고 어두운 저녁에 떡 방앗간으로 어머니를 따라 갔었습니다. 떡 방앗간에 도착하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쌀을 바닥에 있는 줄에 놓고는 찾아 갈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는 떡 방앗간을 돌아보면서 차도 없는 시골 바닷가길, 뱀들이 널려 있는 독사골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래도 부르고 달도 쳐다보면서 "엄마 왜 오늘 떡집에 갔지?" 물으니 "주말이 정월초 하루 새해라 아빠와 언니 둘이(임시 피난학교들이 있던 부산서) 집에 오거든 그래서 가래떡을 만들어와야 떡국이라도 끓여 먹을게 아니니?" 하시기에 "그런데 왜 떡국을 먹어야 하지?" 여쭙니 "떡이 길게 기계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명이 길어지라고들 먹는 습관 때문이지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보니 먼 시골길도 금방, 셋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오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집 주인을 찾아서 호소를 했더니 와서 보시고는 엄마가 중풍(Stroke)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며 따뜻한 자리에 누워드리고는 가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무거운 쌀을 머리에 이시고 그 먼 산길을 걸어서 떡 방앗간에 갔다 오신것이 원체 심장병(Congestive Heart Failure)이 있으셨던 어머니께 무리가 갔던 모양입니다.

1년 좀 넘게 한약으로 연명하시다 결국 서울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의 "운명의 떡 방앗간!" 지금도 설날 떡 방앗간 기계에서 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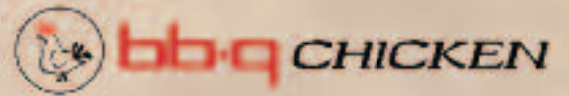
나오는 가래떡 그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공장건만 시끄러운 기계소리도 맛있게만 생각했던 그 날밤의 기억을 오늘까지 해마다 다시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운명의 떡 방앗간 때문에 엄마없이 자라서 이 외국땅에서 설날마다 한 없이 울며 살아온 저의 운명.

바로 그 방앗간 이야기를 김 선생님께서 쓰신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김화옥 선생님의 글로 인해 한 없는 감명과 추억이 떠오르는 떡집 기억으로 한 없이 울고 지낸 2017년 새해를 동감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듯(창세기 1)이 '말', 즉 '글' 이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 TWICE GRILLED WHOLE LEGS

Always be happy with bb.q premium café menu.  
We are proud to use only the best ingredients on  
everything we serve.



## SOFT OPEN

2017.3.23. 5PM  
617.903.3359



**bb.q**  
CHICKEN

They returned for more when they found out  
the bbq chicken were actually good.

**18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가맹점 모집 :  
franchise@bbdotqusa.com  
617.304.7001

#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 “2017년 정시지원 합격 현황”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2014년 스탠퍼드대학 학부입학처장인 리처드 쇼(Richard Shaw)는 5%라는 역대 가장 낮은 합격률을 발표하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그 이상 더 낮아질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스탠퍼드는 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었는데, 전체 지원자 가운데 95 퍼센트 이상이 불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단지 4.65%에 그쳤다. 하버드도 이 전설적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교 졸업생의 95%를 불합격시키므로써, 지원자의 5.2%만을 받아들였다.  
 올해 각 대학의 정시지원 결과가 이제 대부분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지난 20년 동안 광적일 정도로 치열했던 경쟁률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대학 입학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대학이 학생을 이전에 비해 적게 선발하기 때문일까? 대학이 갈수록 신입생 정원을 줄이기 때문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미국내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은 지난 20년 넘게 신입생 정원을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심지어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그리고 코넬 같은 대학들은 최근에 오히려 신입생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했다. 예일은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합격률이 낮아지는 주된 요인은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내 상위권 25-30개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입학이 더 힘들게 되었다. 10년 전 23,956명이 스탠퍼드를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44,073명이 지원함으로써 2007년보다 무려 2만 명 넘게 증가하였다. 컬럼비아의 2007년 지원자 수는 18,081명이었는데, 올해 37,389명이 지원함으로써 10년 동안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도대체 이 많은 지원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공통지원양식(Common Application)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서 작성이 쉬워진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한

학생이 대략 7-8개 대학을 지원하였다면, 요즘에는 15-16개 정도가 보통이 되었다. 둘째, 대학 진학 열풍이 거세지면서 불안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원자 수는 증가하고 합격률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다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듬 해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외국인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다. 특히 중국 본토와 인도 같은 나라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대학 진학 광풍 속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어떤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보충자료인 에세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지원서와 에세이의 “질” (quality)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지원서와 에세이를 대학에 막 뿌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략” (strategy)이 생명이다. 대놓고 막 쏘면 도리어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이 떨어진다. 집중해서 쏘 화살일수록 명중 가능성이

이 높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이 가진 역량이 그 대학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입 현황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합격한 학생들의 환호와 불합격한 학생들의 씁쓸함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 하나의 뉴스는 우리 모두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또한 명의 하버드 학생이 기숙사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자살이 확실시 된다. 이번에도 아시아 학생이었는데, 하버드 법대 학생으로서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 마침 대입 발표가 있던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도유망한 젊은 학생이 만약에 하버드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인생에는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산다는 것, 생명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 보스턴과 서버브 지역에서 ESL과 스킬 빌딩 프로그램

888.848.8260  
INTERNATIONAL@CSINOW.COM



CSI 는 모든 타입의 인터내셔널 학생 등록을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언어 학교에서 트랜스퍼 가능
-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금 CSI로트랜스퍼(Transfer) 하시고 \$100트랜스퍼료 할인 받으세요!

**PROMO CODE**  
**NPBK3**

Use Promo Code to Apply Online CSINOW.EDU  
CSINOW.EDU에서신청하실때 프로모션 코드 NPBK3를사용하십시오.

**\$100 OFF\***  
Transfer Fee

\*Promotional offer valid only for students who enroll and start classes for spring 2017 intake.

##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33 주/ 강의 + 랩

- 초급 ESL
- 중급 ESL
- 고급 ESL

**\$3,9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카데미 Academic ESL

33 주/ 강의 + 랩

- 글쓰기
- 문학
- 대화

**\$4,2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킬 빌딩 Skill Building

44 주/ 강의 + 학외연수

- 고객 서비스
- 전문 서비스직
- 전문 비서직
- 스몰 비즈니스 관리
- 세일 & 마케팅 전문

**\$5,1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SINOW.EDU

Computer Systems Institute (CSI)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ivision of Professional Licensure, Office of Private Occupational School Education. CSI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to award certificates. ACICS is recogniz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For more on accreditation and why it matters for you, check out the Accreditation page at <http://www.csinow.edu/csi-advantages/accredit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s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Students enrolled in ESL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ork authorization. Programs vary by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gram graduation rate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 Effective: 02/01/2017 v-MA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1)

4월은 재정교육의 달

채권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융자금 계산 방법,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월을 재정교육에 관심을 두는 달(Financial Literacy Month)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재정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저축**

2009년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난 2017년 3월 8일까지 주식시장은 250% 상승했습니다. \$100,000 투자가 \$350,000으로 세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숫자입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때 유망한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투자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100에서

\$100을 더 저축하면 100% 증가입니다. 어떤 뛰어난 투자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투자 보장**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등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는 원금 등을 보장(Guarantee)한다는 투자종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 보장되는 것은 단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언젠가 우리 모두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한 세금(Tax)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보장' 된다는 것, 특히 금융시장에서 '보장' 한다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종목이 있다고 말하면 숨어있는 비용이 매우 비싼 종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 고수익**

수익이 높다고 하면 그만큼 투자 위험

성 역시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랜 미국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고수익 원금보장' 같은 투자 상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대학교에 가서 투자에 관한 공부(Finance)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도나도 그 종목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투자 방법이나 투자 종목이 없기에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투자종목이 시장에 나옵니다. 2007년도 투자종목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이나 채권(Bank-Loan Funds and Ultra-Short-Term Bond Funds)이 각각 30%와 10%씩 하락했습니다. 다른 예로 은행이자 저금리도 수익이 없자 주식배당금이 많은 회사 주식 투자(iShares Select Dividend)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65%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반 주식은 55% 하락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투자상품이 나옵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No Free Lunch)." 라는 생각과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위험성

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이 유익**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통계 등을 이해한 다음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상품이나 어뉴리티와 같은 투자상품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을 팔면서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투자자가 미국에서 가장 큰 500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비용도 약 0.1%로 매우 저렴합니다. 나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간단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

**-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

이번 주는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외국인(Alien)중 ① 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체체류기간(Substantial Presence Test)'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구분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체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Exempt Individual). 이 Exempt Individual 규정은 연구원 등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 등을 Nonresident Alien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동안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기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비거주자로 인정 받았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총액을 외국 고용주로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과세방법**

다음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 등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된 연구원 등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 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구원 등에게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bling 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 각 소득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

국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구원 등에게 급여, 이자, 부동산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내 원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

그런데 위의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으로 판정되더라도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이 있는데,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예를들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세금이 부과됨)

이자소득 이외에 비과세 소득으로는 지난 주에 살펴본 근로소득(한미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이 있으며, 또한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연구원 등에게 어떤 소득이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미국의 근로소득 : \$2,000
- 미국의 은행이자소득 : \$ 10
- 미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 \$500
- 한국의 이자소득 : 15
-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 \$400

1) 연구원 등이 비거주자(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인 경우

비거주자에게는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위의 소득 중 미국내 소득인 미국의 근로소득(\$2,000), 미국의 은행이자소득(\$10)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임대소득(\$500)만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중 미국내 근로소득(조세조약에 면세)과 은행이자소득(비거주자에게는 과세안함)은 비과세되므로, 이 경우는 결국 미국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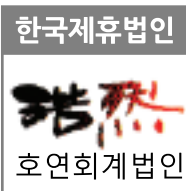
**2) 연구원 등이 거주자가 된 경우**

연구원 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소득(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포함)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미국입국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는 Form1040NR에 의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는 소득이나 아니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Effectively Connected)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4월 둘째주)**

● 새로운 B-1/B-2 (관광비자) 에 관련된 지침

최근 이민국은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학교에 출석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신분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관광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1.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2. 아직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3. 현 관광신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이민국은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하는 시점에 신청자의 관광신분이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 신청이 이미 신청됐어도 별도의 신분연장 신청을 신청해서 기

존의 관광신분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 수업시작 예정일보다 30일 전에 현 관광신분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수업 시작일이 부득이 뒤로 미뤄진 경우.

최근 신분변경 신청의 심사기간이 믿기 어려울 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학교들은 먼저 수업에 출석해야 자신들이 발행한 I-20 를 유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 수업에 출석하면 신분변경이 거부된다는 점을 확실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체포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스턴 코리아와 협의해 법적인 권리와 자세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민국이 체포를 시도할 경우에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 집으로 찾아온 경우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을 하고 안하고도 본인의 의지입니다. 영장이 있으니 빨리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민국의 추방 영장은 일반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다릅니다.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 추방 영장으로만 이민국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영장 얘기를 한다면 영장을 문 밑으로 또는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 됐는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안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고 혹시 변호사가 없더라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

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셔야 합니다. 뛰어서 도망가거나 숨으실 경우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인을 찾으려 온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우선, 건물에서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체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우와 같이 변호사 선임 (현재 변호사가 없어도) 의 권리가 있으신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의지가 강해도 모든 것은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혹시라도 서류미비자란 이유로 이민국 직원의 체포시도나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전화번호 두세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시기길 당부드립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 관련된" 모든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총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유튜브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 단속 및 체포시 대처요령' 과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 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전화와 상담요청을 받았습니.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민국의 기습 단속에 의한 체포시 곧바로 추방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생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동안 타향에서 땀흘려 쌓아놓은 재정적인 기반을 정리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민국에 체포되더라도 바로 추방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로 즉결추방 대상은 밀입국한지 2년 미만인 외국인 또는 기존에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민국 체포 시 많은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재판을 통해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민법 규정상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칼럼을 통해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추방구제책으로 "추방취소 신청" 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있으나 이민판사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에서 면해질 뿐만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을 경우 추방재판에 처해졌더라도 추방재판 종결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개개인의 미국 거주기간, 미성년자 자녀 유무, 전과 유무, 건강, 연령 등등을 고려하여 검찰재량 또는 이민판사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같이 추방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이민국이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구금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 체포 및 구금시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석금이 기각되어 구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가족

들로서는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추방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놓는다면 심적인 부담감을 덜 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시 손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에 장기 구금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보석재판을 통해 보석금이 책정되어 석방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구금된 의뢰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높은 금액의 보석금 마련에만 수일이 걸렸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비가 떨어져 생활이 막막해지거나 또는 비즈니스 운영 또는 매매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수감되어 있는 바람에 막심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재정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미리 작성해두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보석금 예치시 추후 추방재판이 종료되면 보석금을 환불받게 되는데, 이 때 구금된 당사자가 아닌 보석금을 예치한 분에게 환불되기 때문에 2-3년에 걸려 추방재판이 완료된 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 보석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예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 친구,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금된 의뢰인의 경우 케이스 분석 및 진술서 작성 등 변호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면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금된 케이스 (detained docket)일 경우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라 2-3년이 걸리는 비구금 케이스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기본적인 서류 패키지로 준비해놓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추방방어 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H-3

영주권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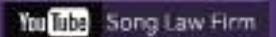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풀러커 연매상 \$1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아카데미 프로그램

####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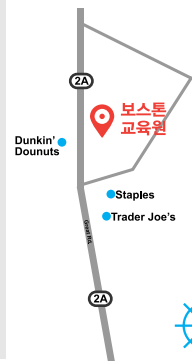
###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